

2021년도 한중역사 관련

신진학자 초청 학술 워크숍

- 일 시 : 2021년 12월 13(월) 14:00~18:00
- 장 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일 정

구분	시간	내용
개회식	14:00 -14:10	환영사: 남상구 연구정책실장
1부 발표	14:10 -15:40	사회: 박장배 북방사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清代“滿洲”共同體和宗族研究> 김준영(중국 南開大) ■ <중화인민공화국초기(1949-1959) 상해시 기층국가의 구조와 작동: 里弄 주민관리를 중심으로> 손장훈(고려대) ■ <清末 新政期 天津審判廳 研究> 조병식(서울대) ■ <해방 직후 북한의 선전선동체계와 군중문화사업(1945-1950)> 박창희(성균관대)
		토론: 홍성민, 문상명 연구위원
휴식	15:40 -15:50	휴식
2부 발표	15:50 -16:50	사회: 김현숙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관제 연구> 이규호(동국대) ■ <고구려 초기 지배세력의 재편과 정치체제의 변동> 김성현(서울대)
		토론: 이성제, 고광의, 위가야 연구위원
휴식	16:50 -17:00	휴식
3부 발표	17:00 -18:00	사회: 박선미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와 축조수법 연구> 이정범(고려대) ■ <渤海上京城規劃布局研究> 김은옥(중국 吉林大)
		토론: 권은주, 배현준, 이유표 연구위원

목 차

김준영	清代“滿洲”共同體和宗族研究	1쪽
손장훈	중화인민공화국초기(1949-1959) 상해시 기층국가의 구조와 작동: 里弄 주민관리를 중심으로	9쪽
조병식	清末 新政期 天津審判廳 研究	16쪽
박창희	해방 직후 북한의 선전선동체계와 군중문화사업 (1945-1950)	24쪽
이규호	고구려 관제 연구	32쪽
김성현	고구려 초기 지배세력의 재편과 정치체제의 변동	38쪽
이정범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와 축조수법 연구	43쪽
김은옥	渤海上京城規劃布局研究	51쪽

清代滿洲共同體和宗族研究

김준영(중국 南開大)

본 논문은 만주공동체와 宗族이라는 두 연구 테마를 하나의 연구 테마로 구성하였다. 두 연구테마를 하나의 주제로 아우를 수 있었던 요인은 두 테마 모두 만주인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동시에 팔기제도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집단이기 때문이다. 즉 만주공동체는 만주인을 구성하는 대집단 격이고 만주宗族은 혈연적 관계에 기반 한 소규모 만주인 집단인 것이다. 만주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한화론과 같은 만주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만주인의 한화현상을 설명할 때 기존 연구는 주로 '國語騎射'와 같은 국가 주도의 만주정체성 유지를 위한 정책 변화 및 만주인의 한문화 수용을 통한 외연적 변화에 중점을 두어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만주공동체가 역사 무대에 등장한 이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외연적 성장이 종식되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여준 만주인의 多種族 특징과 내부적 계층에 따른 그들의 정체성에 차이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개별 만주인의 기억 자료인 족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만주인 스스로 생각한 만주정체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팔기는 만주정체성 및 만주인의 신분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만주공동체를 논함에 있어 당연히 팔기와 연관성을 찾는다. 그러나 만주宗族에 대한 선행연구는 만주공동체 혹은 만주인에 대한 연구와 달리 팔기제도와 연관성을 살피는 시도를 찾기 어렵다. 이는 만주宗族의 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族產의 형성, 族規 수립, 족보 편찬 등이 표면적으로 보기에 만주인이 한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또한 족보자료가 갖는 개별성으로 인해 이러한 자료를 규합하여 공통된 방향성을 찾는 데 자료적 한계와 시간적 소요가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이었다. 그간 宗族史 연구가 강남지방 한족宗族에 치중되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화북지방을 비롯해 소수민족의 宗族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고, 그 결실로 만주족 족보 자료집이 다수 출간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연구환경 변화를 이용하여 만주宗族 족보자료 분석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宗族 형성 지표의 실제 운용 과정을 살펴, 만주종족의 특징 및 팔기제도와와의 연관성을 밝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하였고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문 부분은 총 5장이다. 먼저 제2장과 제3장은 만주인의 거시적 집단인 만주공동체에 대한 탐구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 제6장은 만주宗族에 대한 연구이다.

제2장 ‘만주공동체의 조성’은 누르하치의 굴기와 만주공동체의 출현에서부터 입관 후 漢軍出旗 정책의 시행까지 만주공동체의 외연적 확대 과정과 그 종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구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견지해온 만주 多種族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만주인의 범주를 정의할 때 팔기내부의 民族旗 구분을 기준으로 삼아 漢軍旗 출신의 한인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누르하치가 거병하여 여진(女真)으로 통칭되는 건주, 해서, 야인여진을 통합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여진인으로 흔히 통칭하는 집단 사이에서도 상호간 種族적 이질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만주인 族源을 살펴보면, 해서여진은 사실상 蒙古系와 더 가까운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주공동체는 그 형성 초기부터 多種族 집단에서 출발하였고 오랜 시간 공존하면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본래 한인 출신이고 漢軍旗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만주공동체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재까지 滿族으로 분류되어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漢軍旗 출신이기 때문에 만주인을 논할 때 만주공동체 형성 초기 팔기에 입기 하여 만주인이 된 한군기에 소속 한인들도 배제할 수 없다.

만주인의 만주정체성은 입관 후 외연적 모습으로는 더욱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또한 多種族 공동체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터에 그들의 種族적 근원은 만주정체성 여부에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 다만, 만주공동체는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점차 계층화되었고 팔기의 戶籍에 명시되어 세습되었다. 만주공동체의 계층화 속에서 種族 출신을 초월하는 변곡점이 존재하는 데 그것이 바로 팔기에 입기한 시기에 따라 구분되는 新·舊滿洲 구분이

다. 新·舊滿洲의 개념은 누르하치 시기와 홍타이지 시기를 구분하는 개념에서 입관 전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변한 후 그 기준이 바뀌지 않고 지속되었다. 『八旗滿洲氏族通譜』와 개별 만주인 족보 자료에 기재된 宗族의 族源 기록을 살펴본 결과 청조가 입관 전 팔기에 입기한 만주인을 지칭하는 구만주인은 다양한 種族 출신으로 구성된 집단이었지만 하나의 공통된 지향점인 집단기억을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구만주인들은 ‘隨龍入關’, ‘宗族의 백두산 기원’, ‘입관전후 수립한 군공’ 등이다. 이러한 구만주인들의 집단기억은 만주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계층으로 특정할 수 있는 요소로, 구만주인들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 만주공동체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신만주는 多元的 정체성이 구만주인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다. 즉 신만주는 구만주보다 만주공동체의 일원이 된 시기가 짧기 때문에 자신들의 본래 種族 근원에 대해 구만주인들보다 선명하게 기억한 결과였다. 가령 『瓜爾佳氏家世錄—伯都訥錫伯人奉派遼陽駐防』의 족보를 보면, 과열차씨 宗族은 순치 8년(1651) 만주정백기에 편재되어 遼陽駐防으로 파견된 錫伯人 출신의 新滿洲人 이었다. 그들은 족보 명칭, 宗族의 世系에서 滿洲 성씨와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주정체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본래 族源인 錫伯族의 정체성 또한 병기하여 자신들의 본래 정체성 또한 나타내고 있다.

제3장 ‘팔기 이주와 동북 만주공동체의 개편’은 청조의 팔기 이주정책과 『清代滿族家譜選輯上·下冊』이라는 만주족 족보자료집을 검토하여 만주공동체의 발상지인 동북지역의 만주공동체가 어떠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 연구하였다. 족보에 기록된 각 만주宗族이 팔기에 입기한 시기, 宗族의 분화 및 이주시기 등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동북 만주인을 東北 土著 신·구만주, 關內 신·구만주, 關內 漢人 출신으로 구분하였다. 동북 만주인의 구성 과정 및 그들의 정체성을 살펴본 결과 동북 만주인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동북 만주인은 시종일관 다양한 種族이 융합된 多種族 공동체였다. 일각에선 동북지역을 만주인의 발상지로 보고 이곳은 한문화의 영향이 억제되어 만주인의 구습과 정체성이 유지된 곳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청조 통치자는 입관 초기인 순치

6년부터 이미 관내 한인의 초민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중 일부는 만주인이 되어 현재까지 滿族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신만주로 유입된 동북 변경 소수민족은 만주화가 필요한 집단이었다. 東北 변경에서 入旗 하여 신만주가 된 여러 소수민족은 淸語와 騎射와 같은 만주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혈된 집단이 아니었다. 이들은 기존 만주인과 오랜 기간 다른 거주환경과 문화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만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교육 및 적응 과정이 필요한 집단이었다.

세 번째 동북 만주인은 관내 만주인과 달리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였고 그로 인해 환경적으로 관내보다 만·한 교류가 더욱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關內 만주인은 동북으로 이주한 후 대부분 旗地, 莊園 등 토지를 경작하거나 황무지를 개간하는 역할을 맡았다. 즉 이곳의 거주환경은 생산 활동과 유리되었던 관내 만주인들과 달리 직접 생산 활동에 종사한 것이다. 따라서 동북 만주인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주변 한인과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농사법을 전수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융화되었다. 또한 거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동북 팔기주방은 關內 주방과 달리 滿城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두지 않았다. 즉 만·한 간의 자연스러운 인적교류가 가능하였고, 만주족보 世系에 보이는 빈번한 통혼 흔적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만주공동체가 팔기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층사회 조직도 니루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도 니루에는 좌령 이외에 각 宗族을 대표하는 족장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제4장과 5장은 만주공동체가 팔기를 중심으로 조직된 가운데 니루에서 족장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만주공동체라는 큰 조직 하에서 종족이라는 개별 집단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청조의 공문서인 滿漢文 奏摺 중 족장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였다.

제4장 ‘만주공동체에서 종실 기오로 족장 설립과 사회관리’는 만주족장 중 황실 종친의 족장에 대한 연구이다. 청조는 종실의 족장을 선발함에 있어 족인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닌, 청조 통치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옹정 연간 성경에 있는 종실족

장 선발부터였고, 건륭제와 가경제 시기에 이르면 종실족장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수립되었다. 종실은 황제와의 친소원근에 따라 遠支宗室과 近支宗室로 구분된다. 遠支宗室의 경우, 족장위에 총족장직도 있었는데, 遠支宗室 총족장과 近支宗室의 족장은 현직1-2품 종실대신 중에서 선발하였다. 아울러 遠支宗室의 족장은 각 기별로 현직 5품 이상 종실시위장경 중에서 선발하였다. 또한 종실은 족장선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황제의 引見을 거치게 하였는데 청조 통치자가 정식 관료가 아닌 종실족장선발에 관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종실집단에 대한 황제의 영향력 강화이다. 옹정제가 성경족장 선발에 개입한 것을 시작으로 건륭제 시기에 이르면 북경의 近支종실 선발까지 황제가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종실 내부에서 가장 변방에 있는 집단을 시작으로 권력이 강한 황제의 근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또 ‘引見’이라는 관리 선발 방식과 종실 내 혈연적 지위가 아닌, 황제가 하사한 관품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황제와 가까운 사람을 선발하여 종실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한 의도를 내포하였다.

두 번째는 족장이 팔기의 기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각종 행정사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가령 종실족장은 종실에 대한 戶口 조사 및 족보에 등재, 팔기의 錢糧 및 보조금을 수령하여 분배, 족인 간 분쟁 처리, 宗族 내부의 위법자 보고 등의 임무를 맡았다. 또한 이러한 역할은 혈연집단의 수장으로서 행하는 도덕적 규범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인장을 찍어 팔기관원들과 함께 보고한 사실에 대해 보증하는 의무를 족다. 따라서 청조는 팔기의 각종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종족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려고 하였고 객관적인 지표인 관품을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제5장 ‘만주공동체에서 팔기족장의 설립과 사회관리’는 앞서 종실족장 연구의 연장선으로 종실이 아닌, 일반 만주족장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팔기족장은 그 계층의 범위가 넓어서 종실족장처럼 구체적인 최저 관품 기준을 두지 못했다. 그러나 팔기족장 역시 청조의 규정에 따라 종족 내부에서 자체 선출이 아닌, 족인 중 관직이 높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였다. 청조가 팔기 조직에서 가장 말단인 족장 선발에 관여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팔기의 가장 말단 조직인 니루에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좌령이 니루의 기인들을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족장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주접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한 니루에 속해있는 기인들의 거주지가 점차 분산되어 족장이 이들을 살피기 어렵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조에서는 니루 좌령을 대신해 기인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족장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좌령직의 경직성이다. 니루의 수장인 좌령의 대부분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한정된 지파의 사람들이 좌령직을 독점하였다. 설사 좌령이 죄를 짓고 파직되어도 그 다음 좌령은 해당 지파에서 선출될 정도로 폐쇄적이었다. 따라서 좌령직의 세습이 거듭될수록 니루를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던 좌령의 능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청조는 각 종족이 오랜 기간 조정에서 공훈을 세워 얻게 된 세습좌령직을 철폐하기 보단, 세습직이 아닌 족장 선발에 개입하여 능력 있는 족장을 선발한 후 족장을 통해 기인의 일상생활을 관리 및 교화하도록 하였다. 즉 청조 통치자는 만주인을 교화시키기 위해 반포한諭旨 및訓諭이 최종적으로 족장을 통해 기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상 족장에게 전달된 내용을 살펴보면, 청조 통치자가 유지 및 훈령을 통해 가르치고자 한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주인의 舊習인 國語騎射, 淳樸, 節儉을 강조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청조 황제들은 만주인에게 군주에 대한 忠, 부모에 대한 孝와 같은 유교적 가치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질서 및 법규 준수를 강조하였다. 즉 만주 황제가 강조한 만주인 다움이란 단순히 만주어를 말하고 활쏘기를 잘하는 상무적인 능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통치 집단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족장은 황제로부터 받은 유지와 훈령을 근거로 족인을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는데 족장은 종족 규약인 족규에 족인의 일상생활 관리 권한, 팔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예를 들면, 족장의 통제를 어길 경우 종족 회의를 통해 처벌할 것, 양자를 받을 경우 족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구할 것, 집안의 경조사를 족장에게 보고할 것 등이다. 족규에 족장의 권한을 명시한 것은 만주 종족의 특징으로 그 이유

는 범법자를 제외하고 족장이 失察의 책임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당사자였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청조가 만주족장 선발에서 관직 경험을 중요시 한 이유는 앞서 족인의 일상생활관리 역할뿐만 아니라 만주족장 역시 니루에서 팔기의 공적 임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가령 청조는 족장에게 족인의 팔기 호적 등재 및 신분보증, 세직족보의 작성 및 보고, 팔기의 錢糧 관리 旗地 매매 관리, 紅白事 恩賞銀 지급 관리, 수녀선발 인원 관리 등의 임무를 맡았다. 이상 족장이 팔기에서 맡은 공적인 임무 및 권한은 족인들이 팔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경제적 혜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청조가 족장에게 맡긴 각종 임무는 족장이 족인의 경제권을 장악해 족인의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장 ‘만주공동체 하에서 宗族의 형성과 宗族의 기층사회 작용’은 신만주인의 사례를 통해 본래 만주지역의 기층사회 조직인 무쿤(mukūn)과 가산(gašan)이 팔기의 기층조직인 니루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청조에 투항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가산의 수장(gašan i da, 村長)이 니루의 좌령직을 맡았고 가산의 수장과 함께 투항한 다수의 동성 및 이성 무쿤의 수장(무쿤다, mukūn i da, 族長)은 족장으로 남아 좌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상 제4-5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주족장은 종족내외에서 다양한 사무를 맡았기 때문에 족장을 중심으로 종족조직을 구성하였다. 만주종족조직은 족규를 통해 팔기에서 지급하는 각종 구휼책과 더불어 자신들의 族產을 활용해 족인을 구휼하고 지역사회에 치안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宗族은 발전과정에서 宗族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적 분화 과정을 겪게 된다. 만주宗族은 이러한 자연적 분화 현상과 더불어 팔기 재배치 과정에서 피동적인 宗族분화를 겪었다. 대표적으로 구만주인의 집단기억에서 표출되는 입관에 대한 기억과 강희 26년 전후 관내에서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기억 등이다. 만주宗族은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宗族분화 속에서 宗族관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견지하였다. 가령 종족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족보를 편찬해 보급하고, 族產 두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 밖에 강제적 宗族분화를 야기했던 팔기가 역으로 만주인의 宗

族관계 유지에 도움을 준 측면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팔기의 정기적 行圍操練과 駐防기인의 歸旗制度는 북경과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종족이 북경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였다. 또한 歸旗制度는 만주宗族의 祖塋과 祠堂 등 종족활동의 주요 거점의 위치에 영향을 주어 만주인들은 한인과 달리 자신들의 거주지가 아닌, 북경 인근에 종족의 祖塋과 祠堂을 집중하여 건립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만주宗族의 宗族형성 지표는 표면적으로 한인 종족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었지만, 실제 운용 측면에서는 한인과 다른 만주宗族 만의 특수성을 보인다.

中華人民共和國 初期(1949-1959) 上海市 ‘기층
국가(grassroots-state)’의 구조와 작동
- 里弄 주민 관리를 중심으로 -

손장훈(고려대)

본 박사학위 논문은 1950년대 上海市의 주민 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도시(城市) 기층을 組織하는 과정에서 구현된 국가-사회 관계를 조명했다. 특히 上海 里弄의 ‘기층 국가’ 내부에서 나타난 분절과 괴리에 집중했다. 본고는 기층 국가의 구조와 작동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규명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하여 黨-政府(이하 黨政으로 약칭)의 엄격한 통제 기제, 또는 국가-사회의 협치로 정의내리는 기존의 연구 시야에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탐색을 위해 上海市를 선택한 것은 도시 사회의 組織과 관리에 있어 이 도시가 中國共產黨(이하 中共으로 약칭)에게 가지는 의미 때문이다. 상해시는 그 장악이 특히 난해한 도시였는데 그 인구의 대부분이 공장이나 기관,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 따라서 상해시에서 구축될 정치 구조는 도시 관리의 선레이자 中共의 통치 능력을 보여주는 모범이 될 수 있었다.

우선 본고의 주제가 되는 ‘기층 국가(grassroots-state)’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 기층(基層)은 농촌에서는 촌(村)에 상당하는 최말단 행정 단위로서 支部, 委員會, 派出機構에 의해 관리되는 공간을 가리킨다. 上海市는 리농(里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행정 구역 면에서 볼 때 가도(街道)로부터 분산되어 나간 지선(條)에 위치한 소규모 주거 공동체들이다.

中共이 上海市를 접수했을 때 리농의 정부 기구는 먼저 접수했던 주요 도시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수립할 수 있었다. 행정의 최말단인 가도

1) 1949년을 기점으로 이런 유형의(無組織) 군중이 시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胡煥雍, 『中國人口: 上海分冊』,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87, 66쪽.

수준까지 정부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정부의 파출 기구만을 두었다. 초기에는 區 공안분국의 파출 기구인 派出所가 내부에 幹事를 두어 民政 업무까지 함께 처리했으나 그 업무량이 과도해지자 구 정부의 파출기구인 街道辦事處를 발족시켜 민정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리농의 정부 기구는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와 행정을 담당하는 가도판사처로 정립되었다. 양자 사이 공식적인 上下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자가 담당한 분야에서 리농의 비정부 부문을 향해 업무 계획을 지시, 감독하는 권한을 지녔다.

가도 수준에서 정부가 파출 기구로만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中共의 구상에서 이 기층 지역에서 대중운동(運動)과 복지(福利)를 가리지 않고 사무 대부분을 실행하게 될 주체가 주민 자치 조직(居民組織)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居民組織은 이미 항일전쟁과 내전 시기부터 유력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수립되어 있었다. 이 조직체들은 공백이 되어버린 국가권력을 대신하여 근린 공동체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기존의 조직체들은 1949년부터 中共이 요구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개조되고 통합되었다. 1952년 정립된 居民委員會가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이 조직은 우선 리농의 주민들을 10호에서 20호 정도의 小組로 편성한 뒤 각 小組의 주민들이 소조장과 代表를 선출하며 이 代表들로 구성된 居民代表會議이 委員들을 선정함으로써 발족시켰다. 이후 하부에 治安保衛, 衛生, 優撫, 福利, 文教의 분야로 나누어진 委員會들을 배치시켜 대중 운동과 야간 경비, 청소와 전기료, 수도요금, 임대료의 징수 등 복지 업무를 수행했다.

里弄에서 정부 영역과 비정부 영역이 조직되고 鎮反, 普選 등 중요한 대중운동을 거치면서 상해시 기층 공간의 정치적 관리 체제는 윤곽을 갖추었다. 리농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는 물론 정책과 법령의 선전과 집행까지 居民組織에게 할당되었다. 국가 기구가 하는 일은 그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점검, 심사하며 업무를 담당할 인적 자원을 선발하는 일이었다. 이 관리 방식은 행정 역량 대신 인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건국 직후 미완의 상태였던 당-국가의 역량을 보완하고자 했던 中共의 사회 관리 전략이었다. 이 전략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치 조직조차 당정의 지도 아래 작동하는 구조가 정착되었고 리농에서 정부 영역과 비정부 영역, 국가와 사회

사이 뚜렷한 경계선은 사라졌다. 리농 전체가 국가의 준공식 영역으로 재편되었으며 따라서 이 공간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기제는 이른바 기층 국가 (grassroots state)²⁾로 정의 내릴 수 있다.

‘毛澤東 時期(1949-1979)’ ‘中華人民共和國 城市’, ‘1950年代 上海市 里弄’을 주제로 다룬 선행 연구들³⁾은 이 기층 공간에서 당-국가의 권력이 사회로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을 규명하거나 제한적으로나마 발현되었던 사회의 일정한 ‘자치’ 또는 ‘자율’을 증명했다. 上海市의 基層社會에서도 기존

2) 현대 중국의 최말단 행정 구역에서 작동하는 관리 및 통치 체제에 대해서는 다른 명명도 존재한다. 본고가 다루는 층위의 정치 도식을 벤자민 리이드는 ‘최저층 지방 국가 (ultra-local state)’로 적시했다. Benjamin L. Read & Robert Pekkanen eds., *Local Organization and Urban Governance in East and Southeast Asia: Straddling State and Society*, Routledge, 2009, p.121, p.130.

3) 박상수,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北京基層거버넌스 체제의 구축—도시 街道의 국가와 사회, 1949-1954」, 『東洋史學研究』 第123輯, 2013. 6; 윤형진, 「中華人民共和國 도시주민 조직 방식의 형성—일본 점령기에서 건국 초기 (1937-1954)의 北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원준, 「‘분산성’과 ‘집중성’의 균형 찾기 -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北京의 建政과정 분석」, 『中國近現代史研究』 第67輯, 2015. 9; 郭聖莉, 『居民委員會創建與變革: 上海市個案研究』, 中國社會出版社, 2006; 張濟順, 「上海里弄: 基層政治動員與國家社會一體化走向(1950-1955)」, 『中國社會科學』 2004年 第2期, 「國家治理的最初社會空間: 二十世紀五十年代前期的上海居民委員會」, 『中共黨史研究』 2015年 第10期, 『遠去的都市: 1950年代的上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楊麗萍, 「從非單位到單位: 上海非單位人群組織化研究(1949-1962)」, 華東師範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建國初期的政治動員及其效力—以上海爲中心的考察」, 『上海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08年 第15卷 第2期, 「建國初期基層社會組織化與反組織化的博弈—以上海街居制的創設爲例」, 『歷史教學問題』 2010年 第5期, 「從廢除保甲制度到建立居民委員會—以新中國成立前後的上海爲例」, 『黨的文獻』 2010年 第5期, 「新中國成立初期的上海裏弄整頓」, 『當代中國史研究』 2010年 第17卷 第5期, 「建國初期黨的執政能力建設在城市的實踐—以上海爲中心的考察」, 『社會科學戰線』 2011年 第10期; 黃利新, 『共和國初期北京市城區基層政權建設研究(1949-1954)』, 首都師範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8; 宋月紅, 「和平解放至定都前北平市的區街建設」, 『北京社會科學』 2006年 第2期, 「建國初期北京市的區街建政與居民自治」, 『當代中國史研究』 2006年 第4期; 中岡まり, 「中國共產黨による政權機關の建設: 建國初期の北京を例として」, 『法學政治學論究』 36號, 1998; 大澤武彦, 「內戰期, 中國共產黨による都市基層社會の統治: 哈爾濱を中心として」, 『史學雜誌』 第111編 6號, 2002; Ezra Vogel, *Canton under Communism: Programs and Politics in a Provincial Capital, 1949-1968*,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James Gao, *The Communist Takeover of Hangzhou: The Transformation of City and Cadre, 1949-1954*,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Kenneth G. Libenthal, *Revolution and Tradition in Tientsin, 1949-1952*,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1; Martin King Whyte & William L. Parish, *Urban Life in Contemporary Chi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Richard Gaulton, “Political Mobilization in Shanghai 1949-1951”, Christopher Hoew, *Shanghai: Revolution and Development in an Asian Metropol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연구들이 규명해왔던 국가-사회 관계가 명백하게 관찰된다. 가도판사처, 파출소의 지도 아래 주민 자치 조직의 幹部들은 단순히 행정 명령을 하달하는 차원을 넘어 설득과 교화를 위해 일반 가정에까지 방문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國家의 침투력과 영향력은 전례 없이 증강되었으며 국가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사회의 영역은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동시에 里弄 사회의 일상적 업무(經常工作)들은 주민 스스로 추진해 나가도록 위임되었다. 예방접종, 야간 순찰, 상하수도 관리 등 공동체의 복지 사업들은 기층 사회의 자치에 의한 운영(自辦)이 원칙이었고 또 그렇게 수행되었다. 복지에 대한 책임이 이관되는 과정 속에서 리농 공동체들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한 각종 방식을 고안하고 제도망을 벗어난 사회적 관계에 의존했다. 黨政이 강력한 주도권을 발휘하는 와중에도 기층 사회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사업에 참여할 여지가 보장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1950년대 상해시 기층 사회의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선행 연구 성과는 그 정확성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층 국가를 탐구할 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단일체로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국가 권력을 전제했지만 上海市 檔案館이 소장한 공문서를 검토하면 그 권력의 구조 및 작동 과정에서 균열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上海 里弄의 기층 국가는 우선 구조 측면에서 다원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 기층의 국가 영역은 구 정부의 관련 업무 부문,公安파출소, 가도 판사처, 임시적인 공작대가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루지만, 그 지도 아래 있는 居民組織까지 그 범주 안에 포함했다. 거민조직은 국가 기구의 편제 외부에 위치하는 비정부 조직이자 주민 자치 조직이지만 정부 파출 기구의 지도에 따르고 정책과 법령의 집행에 직접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이 다원적인 구성 요소 간의 관계는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혹은 관료제적인 명령-복종과 거리가 있었다. 대중운동에서는 공작대와 판공실 사이에 그 사전 준비 작업(醞釀)을 두고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시와 구 정부는 균중을 설득하고 당의 입장과 합치되도록 교화시키라고 강조했다지만 리농 현장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했던 공작대는 균중의 참여를 배제하고 독단(包辦)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기층의 파출 기구인 판사처와 파출소는 서

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무를 위해 居民組織의 간부들을 쟁탈하며 서로 감정적인 대립을 벌였다. 구 정부와 파출 기구 사이에서도 구 정부가 그 지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며 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했다. 居民組織 내부에서는 기층 국가의 다중적인 요소 중 어떤 기구의 지시를 받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1950년대 내내 해결되지 못하여 상해시 당국이 고질적인 문제(老問題)로 지칭했던 도시의 이상 현상들은 이 모순의 표출이었다. 상해시 정부는 리농을 지도해 나가야 하는 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가족들이라고 강조하며 자본가와 그 가족(資屬)을 거민위원회 조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파출소나 가도 판사처의 묵인 아래 자본가 가족들은 끊임없이 리농의 사무에 참여했고 거민위원회 위원으로 임용되었다. 리농 운영의 원칙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지만 정부의 지시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리농 간부들은 리농 업무에 주민들을 강제(強迫)로 동원했다. 이 강요는 1950년대 후반 생산과 집체화된 복지에 필요한 공간 및 집기를 주민들에게서 강제로 징수하는 물질적 침해의 형태로까지 발전했다. 상해시 黨政은 이 재산 침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반환 및 배상(退賠)하라고 지시했지만 里弄은 물론 구 정부까지 이 반환 방침에 이견을 표했다. 구 정부의 각종 부서와 국영 기업들이 행정 체계를 무시하고 각종 업무를 직접 리농에 하청하며 발생한 혼란(忙亂) 역시 1950년대 리농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시 정부가 수차례 경고하고 통제했음에도 이 忙亂은 지속적으로 居民組織의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 1950년대 상해시 정부는 노동자 계급이 간부로서 주도하는 里弄을 실제로 구현했으나 그 간부들의 태도와 자질은 미흡했다. 주민 자치 조직의 구성원들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대중운동을 제외하면 리농의 업무에 열성적으로 임하려 하지 않았다. 직위만 차지한 채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이름만 걸어놓은(掛名) 경우조차 있었다.

中共은 리농의 이 老問題가 리농 수준 국가 기구와 간부들의 독단(包辦), 관료주의, 자기중심주의(本位主義)와 같은 사상적 병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1954년부터 기층 가도에 당의 支部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고 1950년대 후반 실제로 행정 구역상 동네 층위에 불과한 리농까지 黨의 支部를 조직한 배경에는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이 사상적 병폐를 교정하려

는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상해시에서 당의 지도력 강화는 국가가 구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1950년대 上海市 里弄의 노문제는 간부들의 사상 문제보다 더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보수로 진행되는 리농의 사업에 리농 거주 일반 노동자들이 참가하기는 쉽지 않았다. 본업과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까지 겹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리농 간부 직위를 기피했고 따라서 일정한 교육 수준을 갖추고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는 자본가 가족을 리농의 운영에 참가시킬 수 밖에 없었다. 정부 없이 복수의 파출 기구만 존재했던 리농에서 관리 및 통제 주체의 부재는 망란의 교정을 불가능하게 했다. 리농 간부들의 불량한 태도와 자질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들은 직장의 본업과 리농의 업무를 병행해야 했으며 특히 가정 주부 출신 간부들은 사회 참여도와 교육 수준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리농의 기층 국가 내부에서 드러난 갈등과 모순은 승리와 승리의 충돌로 간주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도시 기층 사회의 정치적 운영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비합리적 사회 혹은 비합리적 국가에 기인하고 있지 않았다. 기층 국가의 요소들은 정치에 대한 각자의 이해 방식과 주관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대립하고 갈등했다. 리농에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도와 감시의 역할을 맡은 상급 기구는 정책 수행의 이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상징하고 강요했지만, 정책 집행을 직접 수행해야 했던 하급 기구가 현실 속에서 선택했던 수단은 그에 부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본고는 1950년대 上海市의 도시 기층 관리 체제와 그 운영을 분석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국가-사회 관계를 규명하였다. 中共은 건국 이후 도시 기층 사회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전례없이 강화했으며, 또한 국가 권력의 부단한 확장 과정에서도 지역 사무에 대한 사회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일종의 ‘국가-사회 간 협력(協治)’의 구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1950년대 上海市 골목(里弄)의 정치적 구조체는 이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 체제에도 불구하고 일과암적 존재, 즉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단일체가 아니었다. 정부 판공실과 공작대, 정부와 파출 기구들, 판사처와 파출소, 파출 기구들과 비정부조직, 그리고 居民組織으로 이루어진 다중 요소 사이에는 괴리와 모순이 상존했다. 이 기층국가에서는 하급이라고 해서 언제나 상급의 지시와 요구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1950년대 상해시의

리농에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회의 영역이 부재했음에도 동시에 국가의 의지와 지시가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채 사회에 수용되는 일도 없었다.

도시의 기층 공간에서 중국공산당에 의한 사회의 지도와 관리는 상급과 하급 그리고 계획과 실행 사이의 무조건적 복종 관계라는 관료주의적이며 물신화, 추상화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 상부의 지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관철되었는가? 당-정부가 의도했던 바가 그대로 이행되었는가? 당-정부 상, 하급 간 견해 차이는 없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말초의 공간에서조차 일당 사회주의의 영도 체제 내부에 분명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현대 중국 정치의 위험요소는 흔히 서구 자유 민주주의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그로 인한 갈등은 중국 대 서구가 아닌 상급 층위 국가 대 하급 층위 국가라는 완전히 다른 구도로도 발생할 수 있다. 1950년대 上海市 里弄의 기층 국가에 대한 본 연구는 바로 이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清末 新政期 天津審判廳 研究

조병식(서울대)

의화단사건에 의해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했던 청조는 제 방면에 걸친 근대화 개혁(新政)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서 ‘사법주권의 회복’과 ‘통치 체제의 재편’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내건 사법개혁이 추진되었다. 당시의 사법개혁은 서구식 형법·민법·소송법 등을 제정하는 법률 정비와 審判廳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법제도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중 본고에서는 사법제도의 건설에 주목하였다. 재판은 국가 권력과 사회가 직접 접촉하는 영역이자 법률이 현실에서 시행되는 통로로서, 사법개혁의 대·내외적 실제 효과를 파악하는 데 유효한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법제도 건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直隸省 당국이었다. 그 결과 1907년 전국 최초로 서구식 법원을 표방한 天津審判廳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천진심판청의 선구적인 위상에 대해서는 중국 근대 법제사, 신정사 연구자 사이에서 이견이 없지만, ‘鼻祖’로서의 상징성이 유독 강조된 나머지 정작 심판청이 탄생할 수 있었던 천진만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나 제도적 특징, 천진 사회 속에서의 위상과 실제 기능 등 천진심판청을 독립적 주제로 설정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天津은 수도 北京의 문호이자 1861년 개항 이후 華北 최대의 통상항구로 성장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했고, 이른바 ‘好訟社會’가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천진심판청의 소송·재판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은 위기에 대한 국가 권력의 대응 양상뿐 아니라 이질적인 사법제도와 중국 사회의 결합 가능성을 가늠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세기 초 10년 동안 진행된 천진 사법제도의 변천 과정 속에 천진심판청을 위치시키고 천진의 역사적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천

진심판청을 통해 발현되었는지를 밝히고 심판청 설립으로 촉발된 천진의 사회적 변화 또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北洋公牘類纂』, 『袁世凱全集』, 『北洋官報』, 『天津通志』, 『天津誌』, 『大公報』, 『順天時報』, *North China Herald*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당시의 공문서와 언론 보도를 이용하였다.

제1장 「義和團 사건 이후 天津審判廳 설립 이전 시기 天津의 사법제도」에서는 1901년부터 1907년까지 천진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추적하여 천진 심판청 설립의 배경을 天津縣, 天津府, 直隸按察使司, 直隸總督의 4등급으로 구성되었던 天津의 기존 사법제도가 변화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된 사건은 1900년 7월 14일, 의화단사건 당시 투입된 八國聯軍에 의한 天津城 함락이었다. 팔국연군은 점령 직후 통치 기관으로서 都統衙門을 설립하고, 1902년 8월 청조에 반환하기까지 약 2년 동안 천진을 직접 지배하였다. 도통아문에는 관할 구역 내 중국인의 민·형사 안건 일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도통아문 법정(司法部)이 운영되었다. 법정의 재판에서는 민사와 형사의 구분, 자백을 증거의 하나로 간주하는 衆證主義, 약 1년 여간 허용된 律師의 변호, 민사 소송의 규모에 따른 소송비, 벌금형과 자유형의 시행 등 전통 중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의 소송·재판·행형 제도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모든 안건에 대한 판결권을 행사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다. 법관은 민사 안건 또는 경미한 형사 안건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었고, 의화단 잔당, 미허가 무기 소지, 화폐 위조 등 도통아문 통치에 위협이 될 만한 중대 범죄에 대한 판결권은 최고 수뇌부인 도통아문 위원회에 귀속되었다. 즉 도통아문의 재판은 심리(審)와 판결(判)을 구분하고, 서구식 방식에 의해 심리를 하되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권 행사의 주체를 달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결권의 주체를 구분하던 전통적인 중국의 사법제도(必要的覆審制)와 다르지 않았다.

1902년 8월, 천진을 회수한 直隸總督 袁世凱가 당면했던 과제는 천진에서의 통치 체제 재건이었다. 이를 위해서 원세개는 기존의 사법제도를 그대로 복구하기보다는 天津知縣의 사법 기능을 天津縣發審局, 天津巡警, 北洋營務處發審處와 같은 전문적인 기관과 인원에게 대행시키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천진현발심국은 천진현 아문에 설치된 재판 전담 기관으로서 직예성에 배치된 후보 인원들을 재판인원(讞員)으로 충임하였다. 이들은 州縣自理 안건에서 소송장의 수리, 관련자의 소환, 체포 및 심리, 증거 수집과 함께 판결까지 수행했으며, 천진지현은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개입하였을 뿐 그 외에는 간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徒刑 이상인 경우 재판인원들은 심리 단계까지만 주관하였고 최종 심리와 판결 의견(擬律) 작성, 천진지부로 의 보고는 천진지현이 직접 수행하였다.

신식 치안 기구로서 경찰의 건설은 원세개가 천진 회수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는 천진 회수 직후 保定에서 미리 조련한 3000명의 경찰을 곧장 투입하여 촘촘한 순경망을 건설하였고, 이들은 천진의 질서 회복과 치안 유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치안 유지의 일환으로서 당시 천진순경의 총괄기관 南段巡警總局에 설치된 警讞局과 총국의 지부인 局·區長에게 재판권이 부여되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경찰에게 즉결권이 부여되는 위경죄 외에도 일반 민·형사 안건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 특히 경언국에는 재판 수행을 위해 檢事所, 民事所, 刑事所라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검사소는 소송장의 접수, 안건의 성질에 따라 형사소와 민사소로 분배하였고, 민사소와 형사소는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다. 민·형사를 구분하고 민사에 대해서는 跪供을 면제하였으며 檢事長이 재판을 감독하는 등 경언국의 재판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도형 이상의 안건이라면 용의자를 간단하게 심리한 후 천진현으로 이첩하였다.

직예총독의 직속 기관으로서 북양영무처는 원래 군사 지휘기구로서 그 안에 군사 법정인 發審處가 운영되었다. 북양영무처 발심처에서는 주로 무장강도, 印信·화폐 위조 등 강력 사건을 전담 처리하였으며, 재판 결과 죄정이 중할 경우 총독의 승인 하에 就地正法 하였다.

이처럼 천진 회수 이후 원세개는 사안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천진현발심국-천진순경-북양영무처발심처의 관할권을 구분하여 처리시키는 三元 사법제도를 구축하였다. 이는 기존 천진지현 중심의 일원적 재판 구조에서 비롯된 폐단을 해소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했던 그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리고 재판 전담 기관의 운영 경험은 향후 천진심판청이 설립되

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2장 「天津審判廳의 설립과 운영」에서는 제1장에서 다룬 배경을 바탕으로 천진심판청이 설립되는 구체적인 경과와 제도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천진의 삼원 사법체제는 1906년 초, 원세개가 천진현발심국을 경언국의 모델에 따라 裁判所로 개편할 것을 지시하면서 변화하였다. 원세개의 의도는 공식적인 재판권을 보유한 천진현 소속 발심국의 골격과 경언국의 소송·재판 제도를 결합하여 새로운 주현자리 안건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1906년 9월, 청조의 司法獨立 방침이 세워지고 사법독립 기관으로서 審判廳 설립이 확정되면서, 재판소 설립 계획은 심판청 설립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1907년 3월 역사상 최초로 중국인에 의해 신식 법원인 天津府高等審判分廳, 天津縣地方審判廳, 天津縣鄉讞局 등 총 6곳의 審判廳이 탄생하고 시험운동을 개시하였다.

신식 법원으로서 천진심판청에서는 기존과 다른 법리와 제도를 적용하였다. 우선 日本法政速成科 출신 인원들을 적극 기용하고 「天津府屬審判廳試辦章程」을 작성케 하였다. 해당 장정에서는 중증주의, 一事不再理, 權利拘束의 원칙, 소송비의 정액화, 탄핵주의(검찰제) 등이 규정되었다. 그리고 심판청의 모든 인원들은 이러한 법리와 제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시험으로 평가하여 선발하였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 직위가 세분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천진지부·지현의 심판청장 겸임, 대리소송(抱告)과 중요 안건에 대한 상급기관의 의무적 재심(勘轉) 존치 등 기존의 제도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가 후대 연구자들로 하여금 천진심판청을 불완전한 사법독립 기관으로 인식하게끔 했던 주된 이유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관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상황에서 천진부에 국한된 ‘시험운영’인 이상 판결권과 직결된 지방관의 청장 겸임이나 상사의 의무적 재심 등은 쉽사리 바꿀 수 없었다. 또한 대리 소송과 같이 기존의 재판관행을 한순간에 부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천진심판청의 시험운영은 1910년의 개편에 의해 전국적인 심판청 체계로 편입되면서 종료되었다. 개편을 통해 천진지부·지현의 청장 겸임이 해제되고, 檢事局을 檢察廳으로 확대 개편하여 심판청에서 분리시켰으며, 재판인

원들의 인사 또한 法部の 통제 하에 귀속되었다.

그런데 천진심판청의 실상을 검토해보면 기존의 사법 관행들은 여전히 나타났다. 중증주의를 표방했음에도 재판에서는 자백을 하지 않는 용의자에게 고문이 가해졌고, 탄핵주의 재판을 위해 필요한 律師가 미비하고 검찰의 조직과 기능이 심판청에 비해 열세에 놓여지는 등 규문주의 재판의 전통은 그대로였다. 또한 민사 재판에서도 일방의 승소 판결보다는 양 당사자의 타협과 수락서 제출(具結)이 중시되는 주현자리 재판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대중들 또한 '洗冤'을 추구하는 전통적 관념에 따라 심급이나 절차와 관계 없이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이 빈번하였다. 아울러 심판청 인원들은 심판청을 지방관으로의 발판으로 간주하였으며, 서기생, 승발리, 사법순경 등 하급 인원들의 금전수탈이나 기강 해이 등도 여전히 있었다.

제3장 「天津審判廳과 사법의 전문화」에서는 당시의 관료 체계 속에서 천진심판청의 위상을 사법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심판청이 성립된 후 행정으로부터의 재판 분리는 기본적으로 관철되었다. 천진지부·지현의 사법 기능은 해제되고, 각각의 사법 기능은 천진부고등심판분청(지부), 천진현지방심판청과 향언국(지현)에서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천진도 이상 직예성의 고위 관료들은 심판청을 기존의 천진부·현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총독아문에 설치된 발심처에서는 이전처럼 소송장을 수리하였으며, 그 가운데 천진심판청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공을 제기한 경우도 상당하였다. 이에 대해 직예총독 발심처에서는 심판청의 판결과 무관하게 처리 방침을 결정하였다. 직예총독에게 천진심판청은 하급의 재판 기관에 불과하였다.

경찰의 재판권 역시 심판청 설립을 계기로 변화하였다. 원세개는 심판청이 설립되자 경찰에게 부여하였던 폭넓은 재판권을 축소하였다. 경찰과 심판청 간의 역할 분담은 양자 간의 협의와 袁世凱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로 제작된 「權限劃分章程」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의 재판권은 위경죄로 한정되었고 그 외의 모든 안건은 심판청에 귀속되었다. 양자의 권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천진 주민들은 여전히 경찰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 역시 이를 수리하였다. 그렇지만 심판청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대중들의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전국적인 심판청 체계가 구축되면서

경찰의 재판권은 현실에서도 축소되었다. 이는 경찰이 수리한 안건 가운데 “事關〇〇”을 이유로 심판청에 이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확인된다. 천진 경찰은 사법경찰로서 심판청의 사법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4장 「민간사회 속 天津審判廳의 기능」에서는 천진 사회 속에서 천진심판청의 위상과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심판청과 외국인, 紳·商의 관계, 여론의 인식을 집중 분석하였다.

천진은 당시 중국에서 최대의 조계 설치 지역이었으나 上海 會審公廨와 같은 混合裁判所가 설치되지 않았고, 華·洋 교섭 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고주의에 따라 관할 당국이 결정되었다. 중국인이 피고인 경우 외국인이 관할 영사에 소송을 제기하면 진해관도가 해당 안건 처리를 주관하였으며 이를 위한 조사, 체포, 심문 등은 천진지현이 담당하였다. 천진현에서의 재판에는 조약에 따라 관할 국가의 인員들이 파견되어 재판을 참관하였다.

도통아문의 2년 간 통치가 종료된 직후부터 외국 영사들은 직예총독에게 상해 회심공해를 모델로 하는 혼합재판소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직예총독과 진해관도가 거부 입장을 고수하여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영사들은 북경의 公使들을 통해 외교 문제로 비화하여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직예성 당국은 천진현발심국을 재판소로 개편하는 방안을 채택하였고, 그 바탕 위에 천진심판청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천진심판청에 대한 영사들의 불신은 여전하였고 혼합재판소 설치를 둘러싼 직예성 당국과 영사들과의 갈등은 청조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당국 간 갈등과는 별개로 외국인들이 중국인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 영사의 개입 없이 천진심판청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외국인들이 제기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중국인의 채무 불이행이었으며, 심판청에서 차압, 임시 구금, 경매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인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이었다.

天津縣議事會는 청조의 예비입헌 선포 이후 본격화된 지방자치가 실현된 결과로서 천진의 저명한 신사들을 망라하여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었다. 의사회와 그 실행기관으로서의 董事會에게는 “민간의 고통을 대신 진술”할 수 있었고 민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민사 안건을 중재에 의해 처리하던 심판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 관계는 명확한 권한 구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자는 공히 민간의 분쟁을 해소하여 천진 사회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서 협조적이었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소송에 돌입하기 전에 의사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중재에 실패하여 소송에 돌입하더라도 심판청에서는 소송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의사회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였다. 의사회의 의원들은 천진의 실정에 대한 이해와 그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심판청의 판결에 비해 당사자들의 타협을 이끌어내기에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심판청과 天津商會의 관계에서 또한 유사하였다. 화북 최대의 통상 항구로서 천진에서의 상업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진의 商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상업 분쟁을 주현자리의 일환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수용할 만한 판결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심판청에서는 상업 분쟁의 처리에서 천진상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상회는 중재뿐 아니라 장부 검토, 채무액 계산, 차압과 경매 등 심판청의 상업 재판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제공하였다.

또한 당시는 신문, 잡지 등 언론을 매개로 여론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당시 정치적·경제적 선진 지역이었던 천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심판청에 대한 여론의 인식은 우호보다는 비판에 가까웠다. 그러한 비판은 특히 심판청의 재판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두드러졌다.

당시에는 서구의 재판 공개가 사법인원의 자의성을 감독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로 인식되었고 「천진장정」에서도 재판 공개를 명시하였지만, 현실에서는 관철되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실제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 심판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었으며, 그 여론은 천진현의사회, 상회 등으로 결집하여 심판청에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이 전개되었다. 천진심판청에서는 1910년의 개편과 함께 각종 준비 작업을 마쳤음에도 방청을 허용하지 않다가 여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1911년 무창봉기 발발 후 허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천진심판청은 신식 법원으로서의 외피를 가지고 서구식 제도를 시행하고 재판권을 통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전통적 사법제도의 폐단을 해

소하고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 운영되었다. 또한 천진 사회의 각종 기관들과의 협조 속에서 법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갔다. 하지만 동시에 천진심판청이 신식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는 제도적, 사회적 한계 또한 분명하였다. 특히 재판에 대한 당사자들의 개입이나 도형 이상의 안건에 대한 독자적인 판결권 부재는 결정적인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결코 천진심판청 혹은 직예성 당국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청조가 사법독립을 추구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판결권의 구조 변화까지 추구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였다. 따라서 천진심판청은 전통적인 재판권과 새로운 시행 방식을 결합한 산물로서, 독립적 법원보다는 기존 권력의 강화를 목표로 한 재판 전담 기관으로 이해하는 편이 온당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천진심판청의 이중 구조는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을 시작하는 전환기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해방 직후 북한의 선전선동체계와 군중문화사업(1945-1950)

박창희(성균관대)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1945년 8월 해방을 맞은 조선에는,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이라는 국제 정치적 질서와 국내 정치세력의 국가건설운동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남과 북은 세계적 차원의 동서냉전과 궤를 같이 하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상이한 체제를 유지해왔다. 몇 세대에 걸친 분단의 결과 이질성뿐만 아니라 적대의 역사가 쌓여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은 요원한 실정이다. 남과 북의 평화적인 관계의 구축과 이를 토대로 민족통합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질성과 적대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이질성과 적대성의 역사적 기원이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적대성의 역사적 기원은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 전개된 국가건설운동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은 소련의 개입과 지원을 배경으로 사회주의세력의 주도 하에 전개됨으로써, 결국 남한과 다른 사회주의적 색채의 국가 성립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색채는 정치·경제부문에서도 발견되지만, 사회문화부문에서도 발견된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정치·경제적 변화보다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북한에서 일어난 사회문화부문의 변화는 정치·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기 북한의 사회와 문화는 사회주의적 정치권력이 실시한 ‘민주개혁’으로 대표되는 혁명적 정책들에 의해 남한과는 이질적인 형태로 만들어졌음은 물론,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극

적인 변화가 있었음은 추론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방기 북한의 문화부문에 일어난 변화상을 해명하기 위해, 당대 북한에서 선전선동체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군중문화사업이 전개되는 양상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에서 선전선동과 군중문화사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선전이란 일정한 사상, 이론, 지식, 정치적 견해 등을 구두나 언론출판매체와 문화예술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며 해설 교양하는 것을 지칭한다. 선동이란 일정한 주장이나 정책 등을 군중 속에 해설 침투시켜 일정한 정치적 목표를 향하여 그들이 직

접 행동하도록 조직 동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수단과 방법으로는 강연, 담화 등의 구두선동을 비롯하여 표어·포스터·만화·격문 등의 직관물 선동과 신문·라디오·영화 등과 같은 언론·문예매체를 이용한 선동이 있다. 그리고 군중문화사업은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정치, 문화, 과학, 기술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교양하는 제반 문화 교양 오락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정치, 기술, 과학에 관한 학습을 도와주는 강연, 담화, 보고, 해설, 독보, 도서 열람 및 생산 기술 교환회를 비롯하여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등의 각종 씨클 사업과 영화, 장기, 야유회, 기타 각종 체육 사업” 등이 군중문화사업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전적 의미의 측면에서 군중문화사업은 문화예술매체를 활용하는 선전선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해방 이후 북한의 군중문화사업은 선전선동체계 속에서 문화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 대중들은 일상생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과제는 해방 이후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형성된 선전선동체계와 이를 기반으로 추진된 군중문화사업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그것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다. 이는 남한과 다른 북한 사회문화의 이질성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해방 초기 북한에서 성립된 선전선동체계의 조직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부분이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를 구조라고 할 때, 선전선동체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요

소들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해명하려 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선전선동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들의 구성을 파악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당 선전선동부, 국가행정계통의 선전부서, 언론출판기구, 문학예술기구 등의 성립과정 및 역할은 물론 기구들 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선전선동의 조직·사업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 주요 인물들의 면면과 이들의 역할을 분석하고, 선전선동기구의 인적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도출하고자 한다. 선전선동체계는 권력이 구성한 대중과의 소통방식이라는 점에서 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당과 대중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해명이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둘째, 북한의 선전선동체계가 지닌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 선전선동부의 주요 사업이었던 당내사상사업 즉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육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육은 기본적으로 당조직의 통일성과 단결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자들 역시 이러한 목적 하에 소련공산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원사상교육의 핵심과목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결성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과 북조선로동당은 점령국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었던 조건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이 해방 이후 국가건설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소련공산당의 이념과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수용 모방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당내사상사업을 담당한 선전선동부가 소련공산당의 이념과 경험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자 했는지 분석하였다. 소련의 이념과 경험의 수용태도는 곧 해방 조선의 현실인식과 국가건설노선과도 이어지는 문제이기에, 소련과는 다른 북한의 선전선동체계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중선전선동의 구체적 실현방식인 군중문화사업의 전개과정을 이론·정책·실제(현장)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해방 초기 북한에서 일어난 문화부문에서의 변화를 대중의 반응과 연관지어 파악하고자 한다. 군중문화사업이란 문화예술매체를 통해 대중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대중화정책을 의미하며, 해방 초기 국면에서는 새로운 문화의 건설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전선동을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

체성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종래의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전달과 주입으로만 설명하는 견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국가권력과 대중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군중문화사업의 전개 양상으로 고찰하였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론

본 논문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과

군중문화사업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북한의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시한 전체 인민들이 능동성을 발휘하여 주체로 나설 때 가능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북한의 선전선동과 군중문화사업은 인민대중을 국가건설의 주체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북한의 선전선동체계는 조직구조상 위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역할과 관계를 통해 확인된다. 북한의 선전선동체계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성요소는 당의 선전선동부, 내각의 문화선전성, 언론출판기구, 문학예술기구, 사회단체 등이었다. 이들 요소는 각기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당 선전선동부는 다른 모든 요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선전선동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민위원회의 선전부와 내각의 문화선전성은 국가기구로서 선전선동사업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업을 담당하였다. 언론출판기구는 신문·잡지·라디오방송·서적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였다. 문학예술기구는 문학, 연극, 음악, 영화, 미술, 사진, 무용 등의 예술수단을 통해 대중들의 감정과 정서를 조직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회단체는 노동자·농민·여성·청년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층 현장에서 선전선동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름의 역할을 가진 요소들로 이루어진 선전선동체계는 외형

상 당 선전선동부가 정점에 위치하면서 다른 요소들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하는 위계적인 조직구조였다. 위계적인 구조는 소련공산당의 방식을 수용한 것이었으며, 당 선전선동부의 유일한 지도권한은 선전선동사업에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구조였다.

해방 초기 북한의 선전선동이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사상적 통일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 과제의 중요성은 당내사상사업 즉 당원에 대한 사상교양이 선전선동부의 핵심사업으로 설정된 데에서 확인된다. 조선공산당에서 북조선로동당으로 바뀐 이후에도 당내사상사업의 중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공산당의 경험을 학습하고 체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당 선전선동부는 해방 이후 조선의 혁명적 경험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단순 해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명이론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공산당의 경험에 대하여 해방 조선의 혁명적 경험을 근거로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당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었다. 특히 문학예술인들은 이른바 ‘맑스 레닌주의 조선화’를 주장하면서 문화건설노선으로 ‘민주주의민족문화’론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독자적인 혁명노선의 정립 시도의 배경에는 당 선전선동부에 참여한 인사들이 있었다. 분국의 선전부에서 출발하여 북로당 선전선동부로 성립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은 크게 연안계, 소련계, 문학예술인 등이었다.(아래의 표 참조)

<선전선동기구 지도부의 구성과 해방 이전 출신>

성명	선전선동관련 직책	비고
김창만	북조선공산당 선전부장, 북로당 선전선동부장	연안계
박창욱	북로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및 부장, 『근로자』주필	소련계
박무	북로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북조선통신사 주필,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연안계
한설야	북로당 문화인부 부장, 북조선통신사 사장,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상임위원	국내계 문학인
안막	북로당 문화인부 부부장,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부위원장	국내계 문학인
류문화	북로당 문화인부 부부장, 『민주조선』·『인민』 주필	연안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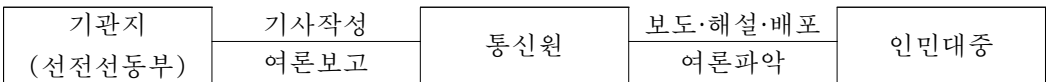
기석복	『근로자』주필, 『민주조선』주필, 문화선전성 부상, 선전선동부 부부장	소련계
태성수	『로동신문』주필, 『근로자』주필, 문화선전성 부상, 『교원신문』주필	소련계
허정숙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국장, 내각 문화선전상	연안계

(자료: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선인, 2003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선인, 2005 참조)

이들은 공히 이념과 활동경력의 측면에서 사회주의자들로 분류되는 사람들로서,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방 조선의 국가건설에 필요한 선전선동노선과 정책을 내세우며, 협력·경합하였다. 이런 사실은 해방 초기 북한의 선전선동이 소련공산당의 일방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 선전선동체계의 두 번째 특징은 당과 대중 사이를 연결하는 인전대(引傳帶)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배치되어 기능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당과 대중 사이의 인전대적 성격은 언론매체와 문학예술단체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확인된다. 현장을 중시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인전대적 성격은 언론매체의 통신망 제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그림 참조)

<통신원의 기능 역할>



(자료 : 「통신망조직에 관하여 각도군당에 보내는 지시-조공북조선분국 선전부장이 보내는 지시(1946.4)」, 『북한관계사료집』 1권, 81-85쪽.)

통신망은 기층의 당원이나 당을 지지하는 열성인사들로 통신원을 선발하고 이들을 통해 대중들의 여론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중들의 생활상의 요구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였다. 무엇보다도 통신원들은 해방 이후 북한의 대중들 속에서 발현된 혁명적인 변화상들을 취재하고 기사화함으로써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데 주력하였다.

현장의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제도는 문학예술단체에서도 운영되었

다. 특히 문예총의 작가 현지파견제도나 사회단체의 씨클활동에 대한 현장 지도활동은 대중과 직접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였다. 이를 통해 노동자·농민대중의 실제 생활 속에서 작품의 주제와 소재를 찾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사회단체는 각 공장이나 농촌 등지에 씨클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지도원을 파견하여 대중들의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인전대는 위계적인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하향식 선전선동의 일방성을 제어하고, 대중과 당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로 기능함으로써 쌍방이 교호할 수 있는 구조로 기능하였다.

이제 두 번째 검토 대상인 군중문화사업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을 정리해보자. 군중문화사업에서 드러난 특징은 ‘당과 대중의 교호성’이었다. 군중문화사업은 ‘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이었다. 그리고 대중들은 군중문화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다. 교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군중문화사업 중의 하나는 문화예술씨클이었다. 씨클활동은 일상적이며 소규모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일상적으로 문예활동에 참가할 수 있었다. 대중들은 문예씨클을 통해 스스로 시인, 소설가, 연극배우, 희곡작가, 연출자, 무용가, 가수, 연주자가 되려는 욕망을 드러냈다. 국가권력은 대중들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였다. 『연극씨클원수첩』, 『문학씨클원수첩』, 『영화씨클원수첩』, 『농촌연극씨클운영법』 등과 같은 예술분야별로 씨클원수첩을 제작 배포하였다. 또한 『로동자의 노래』(시집)와 『로동자문예집』 같은 씨클원들의 창작작품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동일부문의 씨클경연대회도 개최하였다. 이러한 대중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강렬한 욕구에 호응하는 정책은 씨클의 예술적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문예선전역량의 강화로 이어졌다. 일정한 수준에 오른 문예씨클의 경우 인근 지역으로 순회공연을 나가 예술선전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중들은 군중문화씨클을 통해 주체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함으로써 문화건설의 주체로 변화해 갔다.

군중문화사업을 통해 능동성을 발휘하는 대중들이 당과 교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방을 계기로 조성된 혁명적 정세가 있었다. 앞서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중들은 해방 직후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국가건설운동에 참여하며 정치적 진출을 이루어냈다. 남북 전역에서 발흥한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노동자의 조직화, 농민의 조직화 등은 아래로부터의 대중들이 진출한 결과였다. 대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심리적 상태를 혁명적 정세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 혁명적 정세라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소련군이 진주하고 사회주의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권력의 공백을 채운 이후에도 북한 지역의 혁명적 정세는 유지되었다. 새로운 권력은 토지개혁을 위시한 일련의 민주개혁과 군중문화사업과 같은 문화선전을 통해 대중과 교호하면서 혁명적 정세를 지속시켜 나갔다. 그러한 정세 속에서 대중들은 자발적으로 국가건설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

高句麗 官制 研究

이규호(동국대)

1. 문제의식과 지향

본 연구는 고구려 관제의 성립과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본고에서 규정한 관제란 기왕의 연구들에서 다뤄온 官等制와 中央官職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다. 기왕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官等, 官位, 官階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대부분 연구자들의 해석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었고, 그것이 시대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 보기엔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런데 관련 자료들에는 단순히 ‘官’이라 한 뒤 개별 명칭들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고구려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본고의 연구범위 상, 官制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종래의 관제 연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영역이었다기보다는 각 시기별 정치체제나 권력구조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별 연구자들의 시각을 보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고구려 각 시기별 관제의 구조나 개별 관명의 성격 등은 논의된 바 있지만, 전후 시기와 유기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즉, 각 시기 관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찍었지만, 사진 간 달라진 모습들의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1~3세기 관제의 多元성과 重層구조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구려 관제의 성립은 적어도 1세기 태조왕 재위 무렵에는 성립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의 관명들은 소지자의 지위와

직무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삼국지』에는 당시의 관명들이 相加를 시작으로 하나의 서열과 승진계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여타 확인되는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c~3c 중엽				
官職		官名		범주
國相	中畏大夫	沛者/對盧		國
			主簿	
		于台 (丞?)		
			使者	部
	阜衣			
	先人			

하나는 승진계통 상으로 패자(대로), 조의로 이어지는 군사적 직무와 주부, 사자로 이어지는 경제적·행정적 직무의 구분이 있었다.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군사와 경제적 측면을 먼저 장악할 필요의 반영이었다. 다른 하나는 소지자의 활동 범위와 권한 측면에서 部를 무대로 삼는 하위의 사자, 조의, 선인과 고구려라는 국가 단위를 무대로 삼는 상위의 패자(대로), 주부, 우태의 구분이다. 각 관명은 지닌 직무나 성격이 1대1로 대응하고 있는데, 국가성장에 따라 部를 초월하는 범주에서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에 의해 설치되었다고 보았다. 선인과 우태는 각 단위의 근간을 이루는 관명으로서 특정 직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밖에 상가와 고추가는 일종의 존호로서, 상가는 국상을 지낸 加에게, 고추가는 적통을 잇는 加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상위관인 패자(대로)나 주부는 왕과 협력관계에 있는 部의 출신들에게 수여되었다. 상부구조가 국가단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당시 국정을 주도하는 자들에 의해 활용된 것이다. 이 가운데 주부나 승은 명칭에서 드러나듯 漢에서 수용한 것으로서 漢의 많은 관직 중에 주부와 승이 선택 수용된 것은 별도의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主簿은 고구려의 성장에 따라 대외교섭권을 계루부 왕실이 통제하게 되면서, 종래 현도군 고구려현령을 주체로 朝服과 衣幘을 名籍에 의거하여 사여하던 행위가 고구려왕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 원인으로 보았다. 군현 내 주부의 역할은 지방장관의 측근이면서 帳籍 등의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 주된 직무였으므로, 고구려왕은 위세품의 사여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할 주체의 필요성에 의해 주부를 수용하였다. 이후 대외전쟁이 잦아지게 되면서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이나, 조세의 총체적 관리 역시 주부의 역할로서 수렴되었다.

쑤은 실재에 대한 의문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명칭만 전하는 相加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일정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여기서는 승이 군현의 차관으로서 중앙에서 파견하는 자리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장관의 보조와 견제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삼국지』의 시간적 배경인 3세기 중엽에서 멀지않은 시점에 일어난 두 번의 정치적 사건은 그 발단이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고국천왕대 4연나의 반란과 산상왕대 발기와 이이모의 이탈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계루부를 제외한 4부의 지배층은 종래의 독자적 권력을 제약당할 빌미를 제공하였다. 고구려왕은 이들은 견제하기 위해 승을 파견하였고, 승의 위치가 대가가 자치했다는 사자 이하의 관명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의 반영이라고 보았다.

고구려왕이 5부를 초월하는 지위를 지니게 됨에 따라 종래 그가 지녔던 계루부 내의 사적기반을 관리할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中畏大夫(中裏大夫)였다. 왕과 대가가 自置했다고 하는 사자, 조의, 선인은 초기 관제의 성립 이전 ‘모본인 두로’가 그 원형이었다. 중외대부는 왕과의 개인적 관계(혈연, 측근)에 있는 자들만이 발탁되어 왕의 사자, 조의, 선인을 관리하였는데, 여기에는 대가에 의해 자치되지 않았던 4부의 사자, 조의, 선인이 포함되어 계루부 왕실의 영향력 하에 점차 수렴되었다고 보았다.

3. 4~5세기 兄·使者와 一元的 官制로의 전환

계루부 왕실에 의해 설치된 초기 관제 상부단위의 작용, 중외대부의 활동

등은 계루부 왕실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낳았다. 4부의 세력 기반 역시 승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 견제를 받으면서, 독자적 기반을 유지하던 諸加는 수도를 중심으로 집주하게 되었고 방위명 5부라는 행정 구획에 편제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4부의 제가들에게 수여되던 관명들이 소멸하고 그에 대응하는 관명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고구려 관제의 특징으로서 이해되는 兄과 使者가 본격적으로 등장, 발전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5부의 성격이 변함에 따라 관명의 성격 역시 보다 종속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 무렵 처음 등장한 兄은 전후 자료를 살피면 阜衣와 계승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과 사자를 중심으로 고구려 관제가 발달해간 배경에는 제가를 비롯한 왕 이하의 지배층이 왕의 사자, 조의가 되어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위부의 등장을 배경으로 하는 대로는 패자를 대체하며 1위관이 되었고, 주부가 그 뒤를 이으면서 이 상위 2관이 국상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 아래로 사자와 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화하게 되었다. 3세기 말에 大小의 분화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4세기 후반 율령반포에 따라 상위분화하여 太大-大로 나뉘었으며, 5세기 초반 평양천도를 즈음하여 하위분화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영토 확장에 따른 지배세력의 증가와 통치조직의 정비로 인한 것이었다.

~3c中		3c末	4c(373)	5c(427)
沛者/對盧		對盧	對盧	對盧
	主簿	大主簿	大主簿	大主簿
			太大使者	太大使者
			太大兄	太大兄
于台		大使者	大使者	大使者
		大兄	大兄	大兄
(丞?)		主簿	主簿	主簿
	使者	小使者	小使者	拔位使者
				上位使者
阜衣		小兄	小兄	小兄
				諸兄
先人		先人	先人	先人

이러한 변화 속에서 관명 그 자체는 더 이상 특정 직무를 내포하지 않고 소지자의 서열을 나타내는 기능에만 한정되고, 관직의 점진적 설치에 따라 직무가 분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중국계 유이민이나 낙랑·대방 지역민은 중원왕조의 행정체계를 고구려가 수용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구려왕은 기존의 고구려 지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중외대부를 확대 개편한 중리도독과 그의 府였다.

4. 6~7세기 評臺와 宰相職의 운영

5세기	6c 중엽 이후
대로	대대로
대주부	태대형
태대사자	주부
태대형	태대사자
대사자	위두대형
대형	대사자
주부	대형
발위사자	발위사자
상위사자	상위사자
소형	소형
제형	제형
선인	선인

국가팽창을 일단락 한 고구려에서는 5세기를 끝으로 더 이상 관명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6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 관제의 모습은 당시 상황에 맞게 조정된 형태로 이해된다. 후기 고구려 관제는 대대로를 중심으로 상위 5관을 소지한 자들이 국정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보이는 관제의 변화에 주목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먼저 6세기 중엽에 위두대형이라는 새로운 관명이 설치되었다. 이는 종래 태대형의 지위를 대체하면서, 신분적으로나 관부 조직상으로는 長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졌다. 즉, 상위 5관의 최하위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최상위 신분층과 관서장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위치였다.

위두대형의 등장으로 인하여 태대형은 기존의 2위였던 주부를 제치고 2위의 자리로 올라섰다. 그러한 배경에는 태대형을 임명자격으로 삼는 막리지의 등장이 있었다. 막리지는 중서령, 이부상서, 병부상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관직으로서 내조의 재상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總持國事하였다는 대대로가 외조의 재상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대비되었다.

제1위관이자 재상에 해당했던 대대로는 그 실체에 대하여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근래 발견된 『고을덕묘지명』 속 대로의 등장으로 인하여 대대로에 대한 실체에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대대로는 3년의 임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관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대로는 당대의 각종 자료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4~5세기부터 이어져온 1위관으로서 대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대대로는 복수의 대로 가운데 선출되는 관직으로서 5부 국민들의 동의과정을 거쳐 선임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대대로를 둘러싼 국민들의 정치권력 분담과 견제에 대하여 고구려왕은 다시 본인의 권력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존의 중리조직을 개편하였다. 4~5세기의 도독부 조직을 차용한 구조 대신 형제 관명과 결합한 하나의 계통과 근위무관조직을 설치하여 궁궐의 수비와 근시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한 것이었다.

이들 근시관은 중리를 관칭함으로서 기존의 관제조직과 차별되었고, 왕의 가까이서 왕실사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왕과의 개인적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었다. 이는 관제운영의 주체였던 왕으로 하여금 중리관에 있던 자들이 요직으로 나아가는데 발판을 놓게 해주었다. 당시 중리조직의 최고위관이었던 막리지가 단순히 내조 재상의 성격 뿐 아니라 이부와 병부의 직무도 겸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중리조직의 위상이 국가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고구려 초기 지배세력의 재편과 정치체제의 변동

김성현(서울대)

제 박사학위 논문인 「高句麗 初期 支配勢力의 再編과 政治體制의 變動」은 한국 고대사회의 表徵으로 여겨지는 部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지배층이 國政에 참여하여 정치를 운영해 나간 원리와 양상을 究明하고, 고구려의 국가 성립 과정을 주몽이 등장하기 이전 고구려(=舊고구려)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系統的으로 접근하여, 주몽을 구심점으로 들어선 고구려 초기의 역사 전개 과정을 검토한 글입니다.

桂婁部, 涓奴部(→消奴部) 등의 고구려 五部는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혈연관계에 기초한 지배세력의 존재로서 ‘五族’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기사를 통해 검토하여 보면, 『삼국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部의 성격은 고구려에서 어느 시기에 변화한 결과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部가 지니고 있었던 성격의 일면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됩니다. 특히, 部를 관칭한 인물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거나 관등·관직을 소지하여 고구려 국정에 참여하는 자들이었던 반면, 某處人을 冠稱한 인물은 관등이나 관직을 소지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적이 대체로 국정과 관련하여 일시적·제한적인 행위에 그친다는 점에서, 部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층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部에는 이른바 ‘加’라 하던 지배자가 소속하였는데, 部의 中核을 이루는 諸加는 독립된 政治力을 보유한 王者였으며, 그 王者性은 그가 諸 읍락을 統主하는 데서 지녔던 行政的·軍事的·經濟的 측면 등의 支配權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들 諸加는 각기 이끄는 諸 읍락을 바탕으로 那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까닭에 某那部, 그리고 部라는 글자가 사용되기 이전에도 某那를 관칭할 수 있는 존재는 諸加를 위시한 지배층에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이러한 部가 조직된 원인에 관하여는, 涓奴部이든 桂婁部이든 왕실은 餘他 4部와 같이 部에 소속하였던 점, 특히 王部가 교체되었음에도 왕실이 여전히 部에 소속하였던 점, 그리고 새로이 고구려에 통합된 지배세력을 部로 편제하지 않고 部를 다섯 개에 한정된 것에 주목하였을 때, 部는 왕권에 의해 지배세

력이 편제된 조직이 아니었으며, 국가를 성립시킨 주체이자 國政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임을 드러내는 것이 곧 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諸加가 각자의 독자적 지배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고구려를 건설하고, 그 건설의 주체임을 드러내는 상징이자 그러한 지배층의 조직으로 기능한 것이 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桂婁部가 王部가 되기 이전 즉 주몽이 고구려의 왕이 되기 이전에도 部가 존재한 셈이므로, 5部가 고구려를 건설한 주체라고 하였을 때 이 ‘고구려’는 舊고구려로 해석해야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성격의 部가 강하게 유지되던 고구려는 왕권을 중심으로 운영된 나라였다기보다는 部에 소속한 諸加가 중심인 나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왕 또한 기본적으로는 諸加와 같이 加的 性格에 기반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部에 소속한 諸加의 合議를 主宰하고 고구려 전체를 指揮하는 統治者였다고 여겨 집니다. 서로 간에 同質的인 平等을 지니면서도 그 안에서 位階와 序列을 이루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部가 장기간 존재하고 있음을 보면, 이러한 연대가 一時的·短期的 결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유지되었다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諸加는 연대를 통해 部를 조직하고 누층으로 疊築하여 상위권력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지배권을 더욱 鞏固化하였던 것이니, 곧 상부국가로서 舊고구려의 건설이며 그 왕으로서 高句麗王의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왕은 五部에 소속한 지배층인 國人이 共立하였는데, 國人的 共立은 새 왕이 고구려왕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따라서 國人的 共論에 따라 고구려왕이 추대되면, 설령 現王의 直子 우선 계승이라는 원칙하에 우선권을 지녔던 왕위계승 후보자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에 따랐다고 이해됩니다.

결국 諸加는 자신의 독자적 지배기반은 대체로 유지한 채 서로 연대하여 그들의 상부국가로서 舊고구려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보장·공고화하기 위한 상위 정치권력을 마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加가 자신의 지배영역에서는 ‘王者’로서 서 있으면서도, 다시 ‘王者’의 상위 ‘王者’로서 高句麗王을 聳立시켰다는 특징이 있는데, 수준과 성격이 다른 王의 이중적 聳立을 重핵으로 하여 성립해 있는 이러한 정치구조를 ‘二重聳立構造’로 개념화한 연구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정치체제를 ‘二重聳立體制’라 하였습니다. 이중용립체제 하에서 정치권력은, 諸加가 주체가 되어 고구려를 건설하며 발생한 國家權力을 각 部가 分有한 형태로서 部에서 保持되었고, 諸加는 각

부에 소속함으로써 그 權力을 享有할 수 있었으며, 고구려왕 또한 부에 소속하는 위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玄菟郡의 설치 및 축출 과정에서 舊고구려의 王部로서 消奴部와 王室로서 沸流國의 주도권 및 그 영향력은 점차 미약해져 갔습니다. 종래 對漢 관계를 이끌던 舊고구려 왕실의 입지는, 舊고구려를 이끌 만한 새로운 인물이 대두한다면 王統이 바뀔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있었으니, 곧 주몽의 등장입니다. 주몽은 舊고구려의 王室이었던 沸流國王 松讓의 투항을 받아들임으로써 고구려의 새로운 王室을 열었고, 이로써 고구려의 王部는 消奴部에서 桂婁部로 교체되었습니다. 王部가 교체된 당대에는 주몽이 고구려를 ‘建國’하였다는 인식보다는 고구려를 ‘繼承’하였다는 인식이 더 보편적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은 그가 국가의 시조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서 등장한 象徵的 表現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몽은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고구려’를 ‘繼承’하여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舊고구려를 계승한 위에서 성립한 고구려의 국정은 한동안 舊고구려로부터 운영되어 온 조직과 질서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곧 部를 中樞로 한 국가운영체계의 유지라 하겠습니다. 諸加는 부에 소속한 加로서 諸加會議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審議·決定하였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권한은 고구려왕에게 위임되었습니다. 諸加會議는 國中大會에서 실시하던 諸加評議를 포함한 정기 제가회의와 諸加之 共論을 통해 사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회의기구로 구성되었으며, 평시 소규모로 운영되는 제가회의에는 각 部의 대표로서 大加가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大加는 세력 면에서도 大者이겠으나 그와 동시에 국정 운영상 주어지는 일종의 정치적 지위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王部 교체 이후 고구려왕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현안은 舊고구려에서 이탈한 지배세력에 대한 통합 및 정돈이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특히 유리왕 대에 지배세력의 재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나아가 新왕실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의 재편이 일단락하면서, 각 部에 소속한 전체 諸加가 참여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으로 단행한 것이 尉那巖 천도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몽 이후부터 대무신왕 대까지 적극적으로 주변 세력을 통합해 나갔으며, 특히 대무신왕 대에는 부여를 정벌함으로써 예맥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유리왕 대 서쪽 방면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고구려현을 공격

하여 중원 세력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한 것과, 부여 정벌을 통해 예맥사회의 주도권을 차지한 기반 위에서, 대무신왕은 남쪽 방면으로 세력권을 확대해 나가면서 한 군현에 附庸하고 있던 諸 세력을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은 점차 고구려왕으로 집중하였는데, 租賦統責權과 같이 諸加之 경제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왕과의 결탁이 중요하게 되자, 각 部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정 집행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조대왕 이후 官等を 소지한 部 소속 諸加層이 나타나는 양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구려왕 또한 諸加를 포용하여 국정을 이끌어 가고자 하였습니다. 급격히 확장된 영역의 통치에 요구되는 行政力과 支配力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部와의 提携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확장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데에는 이중용립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지배방식이 일단 유효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체제를 무리하게 재편하려고 하기보다는 部에 소속한 諸加之 統主權을 인정한 위에서 諸加가 자발적·주체적으로 새로운 統治理念을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참여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통치이념이란 곧 고구려왕이 諸加가 지배하는 피지배층 또한 국왕의 民으로써 직접 통치한다는 이념으로, 민중왕 대부터 賑恤을 통해 표출되었던 이러한 의지는 태조대왕 대에 들어서 더욱 확산되며 政治的으로도 現實化하여 갔으며, 고국천왕 대에는 賑貸의 恒式化로써 制度化하였습니다. 이러한 時勢 속에 정치권력은 국왕에게 集積하여, 국정은 국왕에 의해 결정되고 국왕의 官僚 집단 및 정치기구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질서가 정립하는 위에서 종래의 읍락사회는 地方으로 재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체제는 원리상 국왕이 정치권력을 掌握한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國王集權體制’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국왕집권체제가 공고화하면서 정치권력은 部에 소속하면서도 아니라 고구려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종래 諸加之 王者性を 뒷받침하던 統主權은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權力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중앙에서 政治權力을 획득하기 위한 현실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앙정치권력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이 재편되어 ‘貴族化’·‘官僚化’하였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部로서 ‘方位名部’가 성립

하였습니다.

태조대왕 대 이후 可視化한 이러한 변동으로 고구려왕은 諸加가 共立한 왕이 아니라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 속에서 모든 民을 통치하는 君主로서의 성격을 띠어 갔다고 이해됩니다. 곧 국왕집권체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나타난 새로운 왕권의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차대왕 이후의 국왕은 現王 및 先代王과의 혈연관계에 의해 왕위계승의 정통성이 확보되었고, 國人の 共論을 통한 共立은 왕위계승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위상을 지닌 절차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고 해석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중용립체제가 작동하던 舊고구려는 지배계급인 諸加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이를 강제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사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舊고구려 시기부터 존재한 部는 국가가 건설되고 운영되는 데 핵심 기반으로 작동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몽의 '건국' 이후 고구려는, 앞선 역사 경험에서 비롯된 현안을 해결해 나가며 이에 동반하여 요구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정치권력구조를 새롭게 調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와 축조수법 연구

이정범(고려대)

I. 머리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굴조사 된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차산 일대 보루의 구조와 축조수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록에 의하면 한강유역은 고구려가 백제의 도성을 함락하고 신라에 의해 밀려날 때까지 오랜 기간 점유했지만 아차산 일대에서 고구려의 성곽이 확인되지 전까지 별다른 물질적 증거자료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5~6세기 이후 백제가 한강유역에서 도성을 철수하고 이 지역이 삼국의 각축장이 되면서 한강유역을 영토화 한 문제에 있어 사료에 대한 해석에 모순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고고학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줄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증가하였다. 발굴조사 된 다수의 고구려 성곽은,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입지적 조건 이외에도 성벽이나 내부시설, 부속시설 등의 축조방식이나 구조적 특이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II-III.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의 연구과정 및 조사현황

<표 1> 남한지역 고구려 보루 및 성곽 주요 발굴현황

지역	명칭	발굴년도(보고서)
아차산일대	구의동 보루	1977년 (구의동보고서 간행위원회 1997)
	아차산 4보루	1차: 1997~98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2차: 200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시루봉 보루	1차: 1999~2000년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2차: 2009~2011년 (서울대학교박물관 2013)	

	홍련봉 1보루	1차: 2004년(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 2차: 2012~13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 3차: 2016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9)
	홍련봉 2보루	1차: 2005년(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 2차: 2012~13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 3차: 2016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9)
	아차산 3보루	2005년(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
	용마산 2보루	2005~2006년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배봉산 보루	2015~2016년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8)
임진강유역	호로고루	1차: 2001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7) 2차: 2006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7) 3차: 2009년, 4차: 2011~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2014)
	당포성	1차: 2002~03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5) 2차: 2012~13년 (경기도박물관, 화랑대연구소 2015)
	은대리성	2003년(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7)
	무등리 1보루	2017년 (서울대학교박물관 2019)
	무등리 2보루	2010~12년 (서울대학교박물관 2015)
	전곡리 유적 목책유구	2008년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0) 기존 토성 1차: 2006년 (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2차: 2010년 (서울대학교박물관 2015)
양주분지일대	천보산 2보루	2012년 (서울대학교박물관 2012)
	태봉산 보루	1차: 2014년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6) 2차: 2015년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7)
	독바위 보루	1차: 2018년 (화서문화재연구원 2020) 2·3차: 2019~20년 (화서문화재연구원 2020)
한강이남지역	남성골 산성	1차: 2001~2002년 (충북대학교박물관 2004) 2차: 2005~2006년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월평동 목책유구	2001년 (충청문화재연구원 2003)
	도기동 산성	1차: 2015년 (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2차: 2019년 (한양문화재연구원 2019)

IV.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

아차산 일대 보루군 이외에도 남한지역에서 고구려 성곽이 확인되는 유적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이는 아차산 일대를 포함하면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임진강유역, 양주분지, 아차산 일대, 한강이남지역이다. 따라서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유적의 분석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고구려 유적들과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1. 성벽

성벽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초부(기저면 다짐층), 토축부, 석축부이다. 임진강유역 강안평지성의 경우 토축부를 세우고 내외로 석축을 쌓은 협축성벽이나, 산 정상부에 조성된 소형의 보루들은 흥련봉 2보루의 함몰지를 제외하면 모두 산턱식으로, 성벽의 뒷채움은 협축성벽의 토축부처럼 성토하거나 판축하여 조성하였다. 두 성벽 모두 기저면 바닥에 다짐층을 조성하고 성벽을 쌓았는데, 임진강유역의 평지성들이 다소 두터운 기저면 다짐층을 갖는다. 석축성벽의 경우에도 토성의 영정주처럼 목주를 세우고 거기에 석재를 같이 쌓아 올렸는데, 성벽이 토성 판축틀의 바깥 협판 역할을 한다. 성벽의 적심을 이루는 토축부는 석축부와 동시에 축조하여 올렸는데, 바깥쪽에는 석축성벽, 내부 대지는 협판 등을 통해 토축부를 조성해 나갔다. 체성벽의 바깥으로 보축성벽이 기저면 다짐층과 체성벽을 보강하지만 보루의 경우 흥련봉 1보루의 겹성벽을 제외하면 성벽 기반부의 보강토 이외에 보축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보루의 성벽렬에서 확인되는 주공열은 초기에는 석축 성벽 이전 단계의 목책시설로 추정하였으나, 한강이남지역이나 임진강유역의 이중목책렬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책시설은 임진강유역의 평지성에서 석축성벽과 시기차이를 두고 조성된 것과 한강이남의 목책성의 경우를 볼 때 고구려의 진출 초기 가장 이른 단계의 관방시설로 보인다. 임진강유역의 목책 위에 석축성벽이 조성된 것과는 다르게 한강이남에서 목책성은

다음단계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해당 지역을 고구려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한강유역을 지나 금강일대까지 남하한 것이라 보기에는 유적의 분포나 성격이 다소 차이가 난다. 목책은 2열로 이루어진 이중목책구조가 특징적으로, 외열과 내열의 목책이 서로 짝을 이루며 마치 판축토성의 판축틀과 같이 축조된다.

2. 치

치는 소형의 보루에 다수가 설치되는데, 성벽을 먼저 조성하고 거기에 덧붙여 치를 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통 치는 성곽이 위치한 정상부의 능선 방향에 맞춰 설치되는데, 다른 보루를 향한 주능선의 경우 치 바깥으로 추가 시설이 설치되면서 이중구조 치가 나타난다. 이중 구조의 정확한 기능이나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주능선방향에 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방어+출입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기 위한 구조로 추정된다. 또한 성벽에 떨어져 설치된 분리형구조 치 역시 치를 떨어뜨려 설치한 정확한 기능이나 용도를 알 수 없다. 분리구조 치는 사용할 당시에도 성벽사이에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바닥면에는 인위적으로 층을 주어 성토한 흔적도 확인된다. 해당 시설 역시 두 가지로 추정 가능한데, 성 외부를 일주하는 교통로의 역할을 위해 공간을 조성했을 가능성과, 능선이나 주변 시설로 인하여 전면방어의 필요성이 있을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 내부시설

건물지는 석축담장을 두르고 담장이나 다른 건물지의 벽체를 공유하는 맞벽구조의 건물지를 조성하였는데, 대부분의 건물지가 줄기초 건물지로 추정된다. 흥련봉 1보루에서는 지하식 건물지도 확인되기도 하나, 지붕에 기와를 사용하기 위한 특이한 구조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태는 건물지의 중복이 최소화 되어 건물지 사이의 중복관계를 추론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일부 건물지에서 다른 시설과 중복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온돌의 형태에 따라 일부 단계설정이 가능한데, 판석으로 벽을 세운 소형의 온돌이

잡석으로 벽체를 세운 대형의 온돌시설보다 우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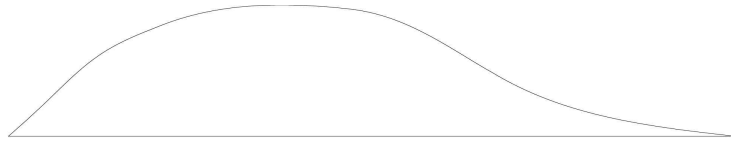
저수시설은 각 보루에서 1기 이상 필수로 조성하는 시설이다. 시설은 먼저 방향의 수혈을 굴광하고 거기에 두껍게 점토를 사용하여 방수처리하고 목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한 목곽시설인데, 다만 2~4기까지 조성되는 경우 저장을 위한 목곽고 가능성을 배제 할 순 없다.

그 밖에 기타 시설로는 도로와 출입시설을 들 수 있다. 흥련봉 1, 2보루의 사이에서 확인된 도로시설은 흥련봉 2보루의 출입시설, 내부의 계단시설 등의 동선과 연결된다. 또한 특수하게 용도가 확인되는 유구 중 방앗간과 제철에 관련된 유구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보루의 내부에서 여러 자급적인 행위를 실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V.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축조수법

1. 방어시설의 축조

- ㄱ. 산 정상부와 사면부를 절토 또는 정지
- ㄴ. 기저면에 다짐층을 조성하여 기초부 조성
- ㄷ. 영정주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목주사이에 석축성벽을 면을 맞추어 토축부와 올림
- ㄹ. 석축성벽이 일정 높이까지 올라오면 내부에도 영정주와 판재 등을 설치하여 대지 조성
- ㅁ. 성벽과 내부 대지조성 완료 후 기단부 보강
- ㅂ. 치 및 출입시설 축조, 배수시설 조성 및 건물지, 상부시설 조성



1. 정상부 및 사면부를 절토하여 정지함



2. 기저면에 성토 다짐하여 기초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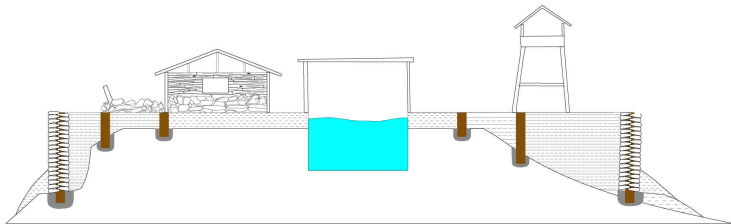
3. 영정주를 세워 석축+토축 쌓기 시작



4. 내부 영정주와 판재 설치 후 대지조성



5. 성벽 및 대지조성 후 기반부 보강



6. 치, 건물지 및 상부시설 조성

그림 1. 고구려 보루 축조과정 모식도

2. 내부공간의 조성

성벽에서 확인되는 영정주 이외에 보루 내부에도 2종의 주공열이 돌아가는데, 이는 내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토축부를 조성하면서 생긴 목주흔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조사된 고구려 보루의 대부분에서 확인되는 형태인데, 성벽의 영정주공까지 포함하여 3종의 주공열이 확인가능하다. 대체로 가장 안쪽열이 소형에 깊이도 얕으며, 성벽의 주공이 가장 규모가 크다.

VI. 고고학 자료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경영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강유역에서부터 임진강유역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성곽의 축조수법은 어느 정도 통일된 공법을 사용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조성된 시기와 지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6세기 이 지역에 진출한 동일한 세력에 의해 조성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보루라는 성곽의 특성상 이 지역의 보루 축조 세력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치소를 가지고 한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대형의 포곡식 산성이나 평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임시적인 성격이 강해 보이는 보루 단계만 확인 되는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보루는 단지 작은 성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기능 하며 마치 큰 성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의 통칭으로, 비록 근래에 만들어진 용어이긴 하지만 그 뜻이 매우 적합하다. 또한 흥련봉 1보루에서와 같이 ‘官’으로 기능 할 수 있는 기와 건물지가 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역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나제동맹군에 의해 고구려의 세력이 임진강 이북으로 밀리면서 그 역할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제와 공방을 벌였던 것처럼 고구려도 이 지역을 잃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라와 공방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영토화 하는데 실패 하지만 많은 고구려의 물질 자료를 이 지역에 남겨 놓게 되었다. 성벽의 축조방법, 토기제작 과 같은 발달된 기술은 주변지역으로 전파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한강유역에서 조사된 고구려의 성곽과 출토 유물들은 당시 고

구려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남한지역은 고구려 연구에 있어 변방에 해당하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축적된 자료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풍부해 졌다. 이에 따라 본고는 임진강유역에서부터 한강유역에 이르는 다수의 고구려 성곽에 대해 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축조 방법을 살펴보았다. 비록 여러 유적에서 조사된 발굴 성과와 함께 많은 연구자들에게 있어 분석되고 정리된 자료를 한곳에 모은 정도의 의미이지만, 앞으로 남한지역에서 고구려의 유적을 조사하거나 연구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료 확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渤海上京城規劃布局研究

-발해 상경성의 기획 구조에 대한 연구-

김은옥¹⁾(중국 吉林大)

I. 머리말

상경성은 발해(698-926년) 228년의 존속 기간 가운데 약 162년 동안 도성으로 사용된 곳이다. 특히 발해는 구국(舊國)-현주(顯州)-상경(上京)-동경(東京)-상경(上京)으로 총 네 번의 천도 과정을 거쳤다. 그 중 상경성은 문왕 대흠무가 천보(天寶) 말에 현주(顯州)에서 상경으로 천도하면서 세 번째 도성이 되었고, 성왕 대화여가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재천도(환도)를 하면서 발해의 마지막 도성이 되었던 곳이다²⁾.

상경성 유적은 지금의 중국 목단강 하류 지역인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상경성지뿐만 아니라 산성지, 사원지, 고분군, 취락유적 등 발해 시기 다양한 성격을 지닌 다수의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유적 분포 상황을 통해 당시 이 지역이 발해의 중점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강사

※ 이 발표문은 필자의 중국 길림대학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글이다. 또한 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고구려발해학회 제75차 국내 학술대회 '고구려와 발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서 발표하였으며 『고구려발해연구』 제70집에 게재하였다. 김은옥, 「발해 상경성의 공간 구조적 특징에 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제70집, 2021.

2) 『舊唐書』 권199下, 列傳 149下, 北狄 渤海靺鞨, “祚榮 遂率其衆東保桂婁之故地 據東牟山 築城以居之”, 김육불 편저(발해사연구회 역), 『신편 발해국지장편』 상, 신서원, 2008, 14쪽; 『新唐書』 권43下, 志 33下, 地理 7下, 河北道, “顯州 天寶中王所都”, 김육불 편저(발해사연구회 역), 『신편 발해국지장편』 중, 신서원, 2008, 266쪽; 『新唐書』 권219, 列傳 144, 渤海, “天寶末 欽茂徙 上京 直舊國三百里忽汗河之東”, 김육불 편저(발해사연구회 역), 『신편 발해국지장편』 상, 신서원, 2008, 32쪽; 『新唐書』 권219, 列傳 144, 渤海, “貞元時 東牟徙東京 欽茂死 私諡文王 子宏臨早死 族弟元義立一歲 猜虐 國人殺之 推宏臨子華璵爲王 復還上京 改年中興”, 김육불 편저(발해사연구회 역), 『신편 발해국지장편』 상, 신서원, 2008, 32쪽.

상경성지는 발해가 926년 요나라 태조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에 의해 멸망되고 그 후 요나라 태종이 수도를 동평(東平-지금의 요녕성 요양)으로 옮기며 상경성에 불을 질러 폐허로 만든 후 이곳을 떠났다고 전해진다³⁾. 이후 여러 자연재해와 인간에 의한 고의적인 파괴 등을 거친 상경성지는 청나라 초 유배인들에 의한 조사 전 까지는 발해 시기 성지임을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00년대에 들어서야 ‘발해 상경성’임을 인지하고 고고학적 조사가 시작되었다⁴⁾. 러시아 · 일본 · 중국 · 북한 학자 등을 중심으로 다국적 학자들에 의한 약 90년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왔다⁵⁾. 시기별 조사 성과들은 다음 표와 같다(표1)⁶⁾.

시기 구분	조사 시기 (년)	주요 조사기관	조사대상 및 성과
제1기 (1930~1940년대)	1931	동성특구문화발전연구소	제1·2·3호궁전지 및 금원 등 6곳의 주요유적들에 대한 조사 진행, 다량의 유물 확보, ‘紫禁城’의 평면도 작성
	1933-1934	동아고고학회	五鳳樓를 포함한 5개의 궁전지·외성벽·문지·금원의 정자지·중앙대가 양측의 사원지·주거지 등 조사, 다량의 유물 확보, 상경성의 전체적인 배치·형태·규모·건축적 특징 파악, 전체 유적실측도 작성
제2기 (1950~1960년대)	1963-1964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상경성 외곽성과 궁성의 구조와 범위 확인, 성 안의 도로와 궁전·관청·시장·사원 등 각 건축물의 구조 및 분포상황 파악, 리방의 구획 확인, 외곽성·궁성·황성 각 담장들의 길이와 너비 측정, 다량의 유물 출토, 상경성지 평면실측도 작성

3) 방학봉, 『발해의 강역과 지리』, 정토출판, 2012, 64쪽.

4) 진춘하 · 동청(최태길 역), 「발해 상경성 유적에 대한 청대초기의 냉고답 정배살이인들의 조사와 기재」, 『발해사연구』7, 연변대학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95-215쪽; 朱國忱 朱威, 『渤海遺迹』, 文物出版社, 2002, 21쪽; 양정석, 「궁궐유적을 통해 본 발해의 도성」, 『발해 5경과 영역 변천』, 동북아역사재단, 2007, 207쪽 ; 趙虹光, 『渤海上京城考古』, 科學出版社, 2012, 5쪽.

5) 상경성지에 대한 초기 조사 성과 및 제1기-제4기의 고고 조사 성과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고 후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김은옥, 「발해 상경성의 발굴 및 고고연구」, 『고구려발해연구』 제45집, 2013; 또한 제4기 이후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제4기 이후로 최근까지 상경성지에서 이루어진 발굴 조사 가운데 외부로 공개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 논문에 게재하였다. 김은옥, 「발해 상경성의 공간 구조적 특징에 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제70집, 2021.

6) 자료 출처는 주로 각 유적 발굴 보고서 및 『中國考古學年鑒』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참고문헌 수량이 많아 본 발표문에서 개별적인 참고문헌 주석은 생략하였다.

제3기 (1970~ 1990년대 초)	1981- 1985	흑룡강성문물고고 공작대, 목단강시문물관리 참, 영안현문물관리소	상경성 궁성에 대한 집중 발굴과 궁성 정문 및 제1호궁전지 복원 사업 진행, 午門址 및 2·3·4호 문지 그리고 3호문지 서 북쪽 주거지 1기와 제1호궁전지 및 양쪽 남무지 그리고 일부 성벽 및 해자 등에 대한 조사 진행
	1985- 1991	흑룡강성문물고고 연구소	황성 내 관청지에 대한 조사 진행
	1992- 1996	발해상경유지박물 관 외	어화원 남문지 조사, 외곽성 내에 부분적인 無건축구역 확인 등 주로 소규모 발굴조사 진행
제4기 (1997~ 2007년)	1997- 2007	흑룡강성문물고고 연구소 외	약 10년간 이루어진 대규모의 체계적인 발굴조사, 제 2·3·4·5·50호궁전지, 외곽성 정남·북문지, 황성의 남문지, 제 1·8호도로유적, 외곽성 11호문지, 성벽 확인 및 세부조사 등 진행
제5기 (2009~)	2009~	흑룡강성문물고고 연구소 외	제1호 도로의 토대 조사 및 외곽성 정남문의 동·서쪽 양측 성벽지 조사, 시추 조사를 통한 44기 유적 및 주거지·방(坊) 의 담장지 등 확인, 궁성 복문지·제1호 궁전지 동남무지·궁성 내 공인(工人) 작업장 및 거주구역 추정지·사원지 등 조사 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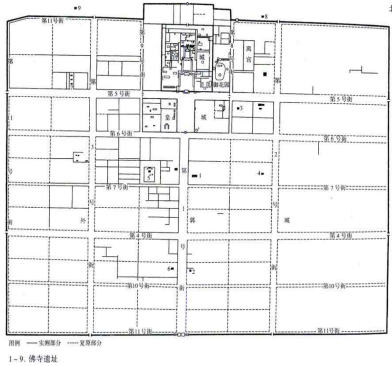
표 1. 각 시기별 주요 발굴조사

상경성지는 발해 고고학에 있어서 핵심 유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다년간의 다국적 학자들이 참여한 조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되거나 유적군이 파악된 범위는 성의 전체 규모에 있어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발굴 조사가 주로 내성 안쪽 범위에 치우쳐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전체 성에 대한 실측도가 작성되고, 일부 내성 밖 주요 유적들에 대한 조사 및 시추 조사 등을 통해 현재 상경성의 전체 평면 형태와 주요 공간 구조 및 범위에 대해서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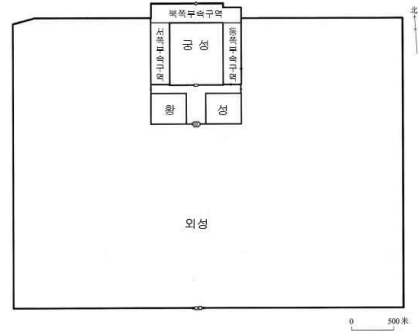
본 발표문은 그러한 다양한 조사 성과들을 바탕으로 상경성의 공간 구성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경성은 정치적 공간이면서, 경제적 공간 및 주거 목적의 거주 공간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통치자인 왕이 직접 거주하였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상경성의 전반적인 공간 구조에서 드러나는 발해 통치자의 권위와 위상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II. 구조적 특징

1. 공간 구획



<도면 1> 상경성 전체 평면도
(『渤海上京城』,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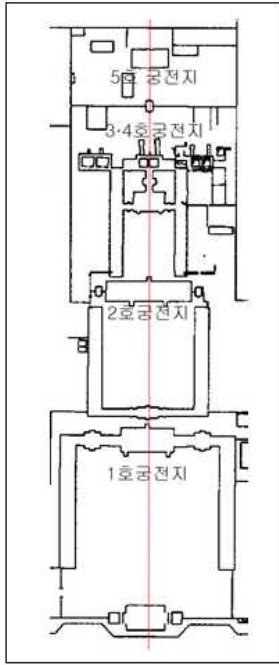


<도면 2> 상경성 내 구역 설정

필자는 ‘상경성을 큰 범위로는 내성과 외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성은 궁성과 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⁷⁾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상경성의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북쪽 중앙 일부분이 북쪽으로 살짝 돌출되어 있는 장방형이다(도면 1). 가장 바깥쪽에 둘러진 외성벽 안으로 북쪽 중앙에 내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내성 안쪽 북쪽 범위는 궁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벽 및 황성의 ‘T’자 형태의 광장으로 궁성과 공간이 철저히 분리된 황성이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내성 밖 외성 안쪽으로는 매우 정연화된 도로와 리방(里坊)으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음을 평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중성(重城)’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상경성을 크게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2중성의 구조로 볼 수도 있고, 외성과 내성 및 궁성 중심 구역을 두르고 있는 성벽까지 3중성의 구조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의견에서 외성과 황성 및 궁성의 3중성 구조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우선, 황성의 위

7) 양정석, 「궁궐유적을 통해 본 발해의 도성」, 『발해의 5경과 영역 변천』, 동북아역사재단, 2007, 227쪽 ; 정석배, 「발해 상경성의 도시계획 : 황제도성으로서의 발해 상경도성」, 『고구려발해연구』 제45집, 2013, 181-182쪽.



<도면 3> 주요 궁전지 배치도 (『渤海上京城』, 16쪽 필자 재편집)

역 사이에 해자가 동반된 성벽을 둘러 철저히하게 공간 분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서·북 궁성 부속 구역 역시 궁전지 등이 확인되는 궁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궁성의 내부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궁성의 중심 구역 역시 동구·중구·서구로 세분화 하였다. 상경성 전체 남북 중축선 상에는 이 궁성의 중심 구역 가운데에서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궁성 정남문을 비롯하여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주요 궁전지와 궁성 정북문지가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듯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도면 3).

현재까지 외성의 성벽에는 총 11개의 성문이 확인되었으며⁸⁾, 외성 안쪽

치가 궁성의 사방을 둘러싸는 구조가 아니며, 북쪽의 궁성 구역과 그 남쪽의 황성 구역이 철저히하게 공간 분리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궁성의 공간 안에서도 궁성의 중심 구역의 북쪽은 궁성 중심 구역의 북벽과 외성-내성의 북벽에 의해 2중으로 보호 받고 있다. 그리고 궁성 중심 구역의 동·서쪽은 궁성 중심 구역의 동·서벽과 내·외성의 동·서벽으로 3중 보호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궁성 중심 구역의 남쪽은 궁성 중심 구역의 남벽과 내성-황성의 남벽 및 외성의 남벽으로 3중 보호를 받는다.

특히 본고에서는 상경의 주요 궁전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궁성의 정 중앙 구역을 ‘궁성 중심 구역’으로 따로 분리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북쪽과 동·서쪽에 위치한 궁성 내 공간을 따로 궁성 부속 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궁성 중심 구역과 동·서·북 부속 구역

8) 11호 문지는 상경성 외성벽에 설치된 문지 가운데 남-북, 동-서 대칭 구조에서 유일하게 어긋나는 문지이다. 발굴 보고서에서는 ‘외곽성 성문은 모두 10곳이 확인되었고, 11호 문지는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서에는 기술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조홍광은 11호 문지를 외성의 정북문 이외의 또 다른 외성의 주요 성문 중의 하나로 판단하였다;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文物出版社, 2009, 14쪽; 趙虹光, 『渤海上京城考古』, 科學出版社, 2012, 99-101쪽.

의 공간은 남북 중축선 상에 위치하는 제1호 도로(중앙대가)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로들로 공간이 정연하게 나뉘고 각 공간은 80개의 방(坊)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해에서 매우 성행했으며 주요 신앙이었던 불교와 관련된 다수의 절터가 상경성에서 확인되었다⁹⁾.

2. 배치 형식

한 나라의 도성 구조에 대한 전체 계획에 있어서 남북 중축선은 정치와 의례 시설 중심으로 이뤄지고 최고 통치자의 권위와 강력한 왕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¹⁰⁾. 따라서 중축선은 고대 도성 구조에서 주요 공통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발해 도성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상경성뿐만 아니라 발해 다른 도성 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고성이나 팔련성 역시 이러한 남북 중축선을 기반으로 기획 구조되어 있다. 특히 상경성은 남북 중축선을 따라 남쪽부터 외성 정남문지-제1호 도로-내성(황성) 정남문지- 황성 광장 중구 - 궁성 정남문지 - 제1~5호 궁전지 - 궁성 정북문지 - 외성 정북문지가 관통하여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중축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대략적인 대칭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평면 형태뿐만 아니라 도로·방·주요 궁전지의 회랑·성벽 문지 등의 배치 상태 역시 대부분 동-서 혹은 남-북의 대칭 구조를 따라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경성 내·외에서 발견된 절터 역시 완전한 대칭구조는 아니지만 이 남북 중축선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Y'자형 구도로 좌우에 배치되어 있음을 근거 삼아 상경성 내 절터 역시 일정한 규칙 내에서 그 위치가 정해졌을 것이라 제기된 바 있다¹¹⁾.

9) 발굴 보고서 평면도 기준으로 외성벽 안쪽으로 8곳, 외성 북벽 바깥 인근에서 2곳, 총 10곳이 보고되었다. 다만 보고서 내용에서는 '성내에 약 14곳의 절터가 확인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文物出版社, 2009, 23쪽.

10) 김영재, 「중국 고대 도성계획에서 중축선의 형성과 그 의미 - 商周 시기부터 『周禮·考工記』 그리고 漢 長安城까지」, 『도시설계』, 2014-4.

11) 정석배, 「발해 상경성의 도시계획 : 황제도성으로서의 발해 상경도성」, 『고구려발해연구』 제45집, 2013, 180-181쪽.

3. 공간 구조적 특징

일반적으로 평지성은 산성에 비해 개방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산성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며 방어적 기능과 더불어 사회적 · 경제적 기능도 동반되는 도성의 경우 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경성은 이러한 평지성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공간 구성 요소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 우선 통치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궁성 중에서도 주요 궁전지 5기가 포함되어 있는 궁성 중심 구역의 경우 이 도성 안에서 가장 보호 받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 공간은 앞서 말했던 2-3종의 성벽으로 철저히 공간이 분리되어 방어적 기능을 배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궁성 중심 구역을 두르는 성벽은 조사 결과 외성벽이나 내성벽보다 훨씬 견고하게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¹²⁾.

외성벽의 안쪽에는 약 80개의 리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방들은 그 둘레에 흙과 돌로 담장 시설을 쌓아서 공간을 분리하였다. 특히 도로와 맞닿은 부분 외에도 방과 방이 맞닿는 부분에도 담장 시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경성은 가장 바깥쪽의 외성벽의 둘레 길이가 약 16km의 굉장히 큰 규모의 성곽 유적이다. 하지만 이 성벽에서 발견된 문지는 불과 11곳 뿐이다. 이처럼 성벽에 출입문 설치를 최소화함으로써 당시 성 내외의 출입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문을 적게 설치하고 성벽 바깥으로 해자까지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방어적 기능을 훨씬 강화시켜 성 내부를 폐쇄적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상경성은 각각의 용도에 맞게 성벽과 담장 및 해자 등으로 공간을 분리 시키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특히 통치자의 공간은 훨씬 더 철저히 공간을 분리 시켜 그 위상을 나타내고 방어적 기능을 더 추가 보완하였다.

4. 서고성 · 팔련성과의 비교

서고성과 팔련성은 상경성과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발해 시기 또 다

12)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文物出版社, 2009, 630쪽.

른 평지성이다. 특히 서고성은 발해 두 번째 도성으로, 팔련성은 네 번째 도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상경성과 차이점 및 유사점에 대해 많은 비교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서고성과 팔련성은 내·외성 2중 구조이다. 상경성과 서고성은 장방형에 가까운 구조이며 팔련성은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세 성 모두 남북 중축선을 기반으로 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성의 구조 배치 및 주요 궁전의 평면 형태, 그리고 내·외성의 2중 구조 등 유사점이 많지만 이러한 비교 연구를 진행할 때 그 범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경성의 전체 규모 가운데 서고성 및 팔련성과 규모와 형태가 유사한 범위는 궁성의 중심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표 2).

범위	상경성 궁성 중심구역	서고성 외성 ¹³⁾	팔련성 외성 ¹⁴⁾
규모	동-서 너비 620m	동-서 너비 630m	동-서 너비 704m
	남-북 길이 720m	남-북 길이 730m	남-북 길이 739m
	둘레 길이 2680m	둘레 길이 2720m	둘레 길이 2885m

표 2. 상경성 궁성 중심구역·서고성·팔련성 규모 비교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자들에 의해 서고성과 팔련성 역시 상경성과 마찬가지로 더 넓은 범위의 외곽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된 적이 있다¹⁵⁾. 현재 외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벽은 내성벽이고, 내성이라고 불리는 성벽은 궁성벽으로 보고 그 바깥으로 외성벽의 존재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지금의 외성벽 바깥으로 더 넓은 범위의 외성으로 추정되는 유구나 유적은 확인되거나 보고된 바 없다.

13) 발굴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정확한 길이는 북벽 632m, 남벽 628.2m, 동벽 734.2m, 서벽 725.7m, 전체 길이 2720.1m이지만 발표문에서는 비교를 위해 남-북, 동-서 평균값을 기재하였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西古城 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07

14) 발굴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정확한 길이는 북벽 약 709.2m, 남벽 698.4m, 동벽 743.4m, 서벽 734.4m, 전체 길이 2885.4m이지만 발표문에서는 비교를 위해 남-북, 동-서 평균값을 기재하였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八連城 2004-2009年度渤海國東京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14년.

15) 일본의 齋藤優가 주장하였다. 일부 관련된 내용은 팔련성 발굴 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八連城 2004-2009年度渤海國東京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14년; 齋藤優, 「間島城海蘭平野の渤海遺蹟」, 『考古學雜誌』第40卷第1號, 1954년.

Ⅲ. 맺음말

상경성 유적은 현재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대대적인 보존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중국에서 열린 ‘제3차 중국 고고학 대회’에서 지금의 중국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석기 시기 유적부터 명청 시기까지 주요 유적 100곳을 선정하여 공표하였는데 상경성지를 이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상경성이 중국에서도 현재 매우 주목하고 있는 유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상경성은 발해 시기 유적 가운데 다국적 학자들에 의해 약 90년의 기간 동안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적이며, 160여년 간 발해 시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도성 유적으로 발해 시기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서 밝혔듯 아직도 전체적인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발굴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 역시 현재 발굴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중국측에서 공개하는 자료만 얻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상경성은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매우 규칙적이고 정연화 된 공간 배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남-북 중축선을 기반으로 좌우 대칭 구조는 굉장히 특징적인데 이러한 특징이 전체 평면 형태 뿐 아니라 개별적인 내부 주요 시설 및 도로와 리방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성벽의 소수의 문지만 설치하고 그 밖으로 해자를 둘렀으며 성 내부의 각 구역들 역시 성벽이나 격벽·담장 등을 통해 방어기능을 강화 시킨 폐쇄적인 공간 구조적 특징도 갖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통치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궁성 중심 구역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요 궁전지가 위치한 궁성 중에서도 정 가운데 궁성 중심 구역을 가장 견고한 성벽 축조 방식을 사용하여 쌓고 그 밖으로 해자까지 별도로 설치하여 완벽한 공간 분리를 형성하였다. 앞서 나열한 이러한 공간 구조의 특징들은 모두 당시 통치자의 권위와 위상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몇 중의 성벽과 해자 등으로 공간 내부를 보호 받고, 필요에 따라 성 내외의 출입 통제가 용이하였으며, 정치 구역(내성 안)과 경제 구역(내성 밖-외성 안)을 분리 시

켰다. 또한 정치 구역 안에서도 통치자의 공간인 궁성과 신하들의 출입 기관이었던 관청지 등이 발견된 황성 구역을 성벽과 넓은 광장을 통해 철저하게 공간을 분리 시켜 통치자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즉, 이러한 공간 구조 배치를 통한 도성 건설은 당시 매우 강했던 발해 왕권의 통치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